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94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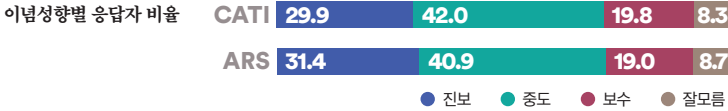
제109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4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88	48.6	496	49.4	1.01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16	51.4	508	50.6	0.98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6	15.5	156	15.5	1.00
응답률	18.0% [총 통화시도 5,587명]			30대	154	15.3	149	14.8	0.96
조사기간	2024년 12월 6일 ~ 12월 7일(2일간)			40대	177	17.6	176	17.5	0.99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6	19.5	197	19.6	1.00
				60대	174	17.3	177	17.6	1.01
				70세 이상	147	14.6	149	14.8	1.01
			지역	서울	188	18.7	186	18.5	0.98
				인천·경기	324	32.3	324	32.3	1.00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8	10.8	1.00
				광주·전라	95	9.5	98	9.8	1.03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52	15.1	148	14.7	0.97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성별

지역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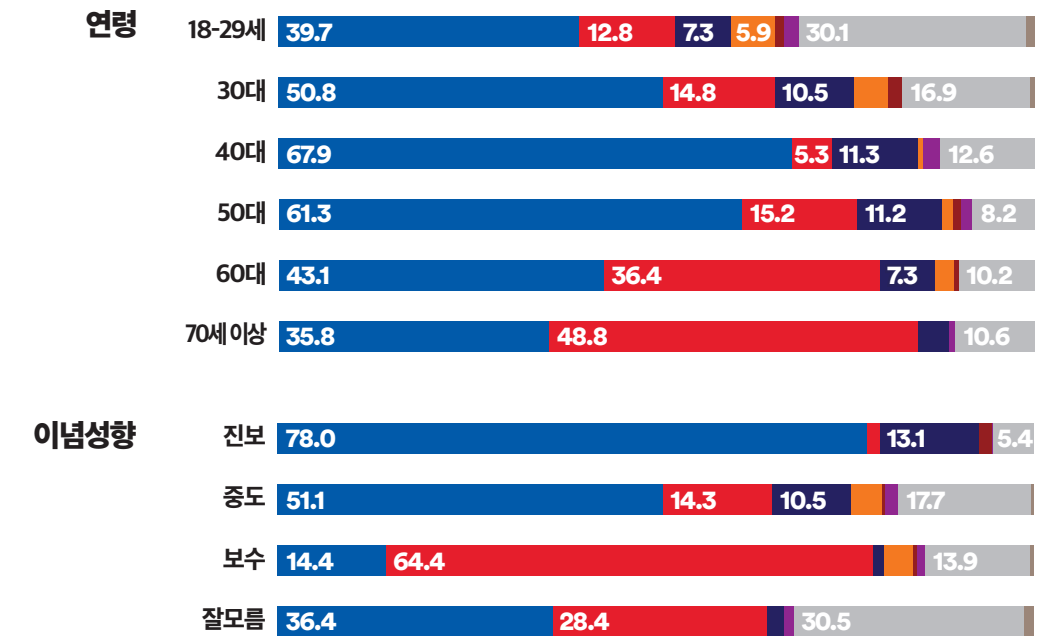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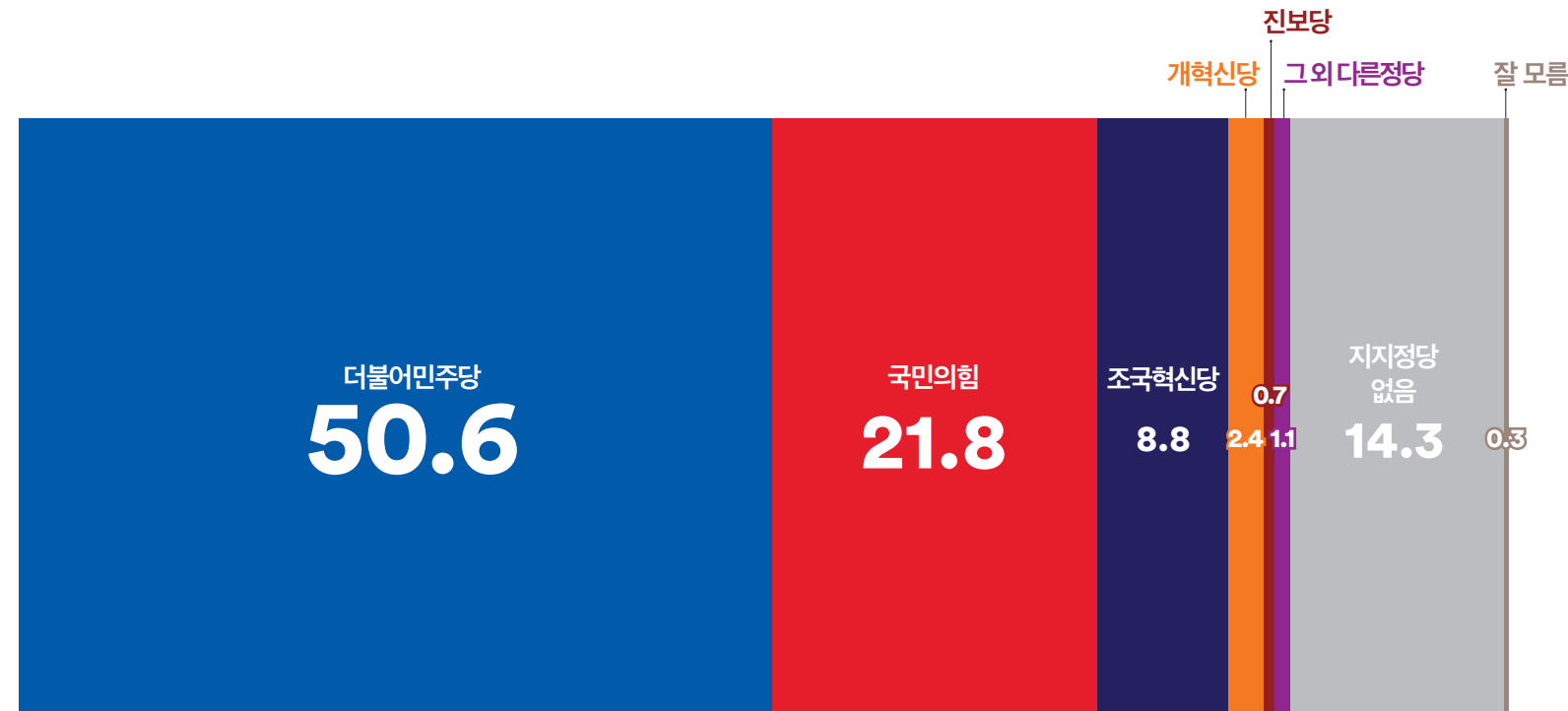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2	51.1	495	49.4	0.96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90	48.9	507	50.6	1.03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연령	18-29세	133	13.3	156	15.6	1.17
응답률	6.1% [총 통화시도 16,530명]			30대	147	14.7	149	14.9	1.01
조사기간	2024년 12월 6일 ~ 12월 7일(2일간)			40대	191	19.1	176	17.6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2	21.2	196	19.6	0.92
				60대	190	19.0	177	17.7	0.93
				70세 이상	129	12.9	148	14.8	1.14
			지역	서울	185	18.5	185	18.5	1.00
				인천·경기	334	33.3	323	32.2	0.96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0.99
				광주·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경북	91	9.1	98	9.8	1.07
				부산·울산·경남	142	14.2	148	14.8	1.04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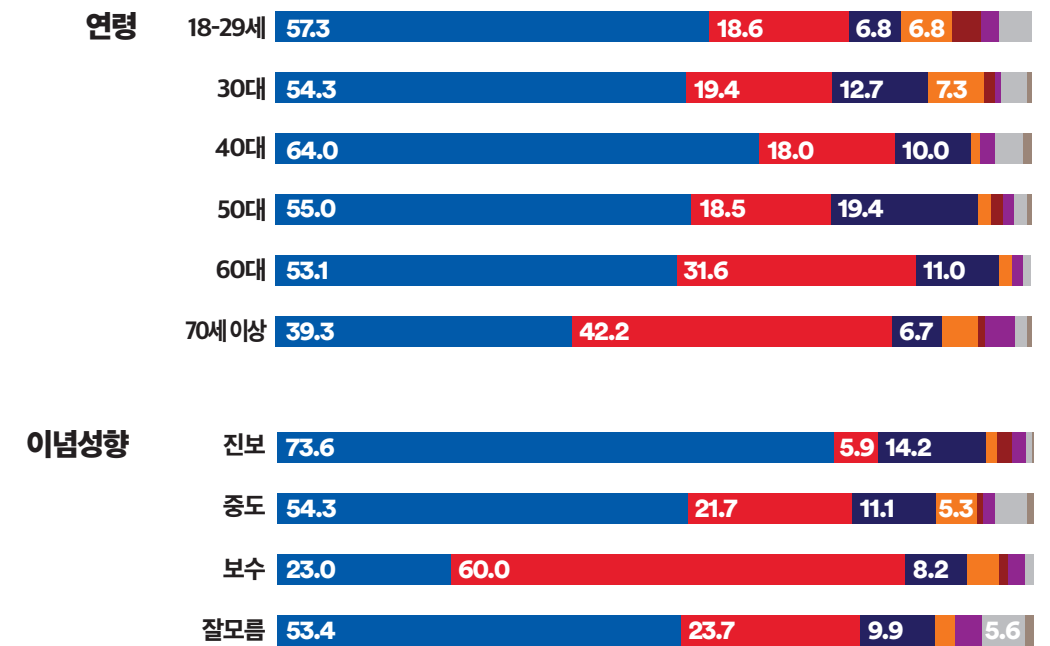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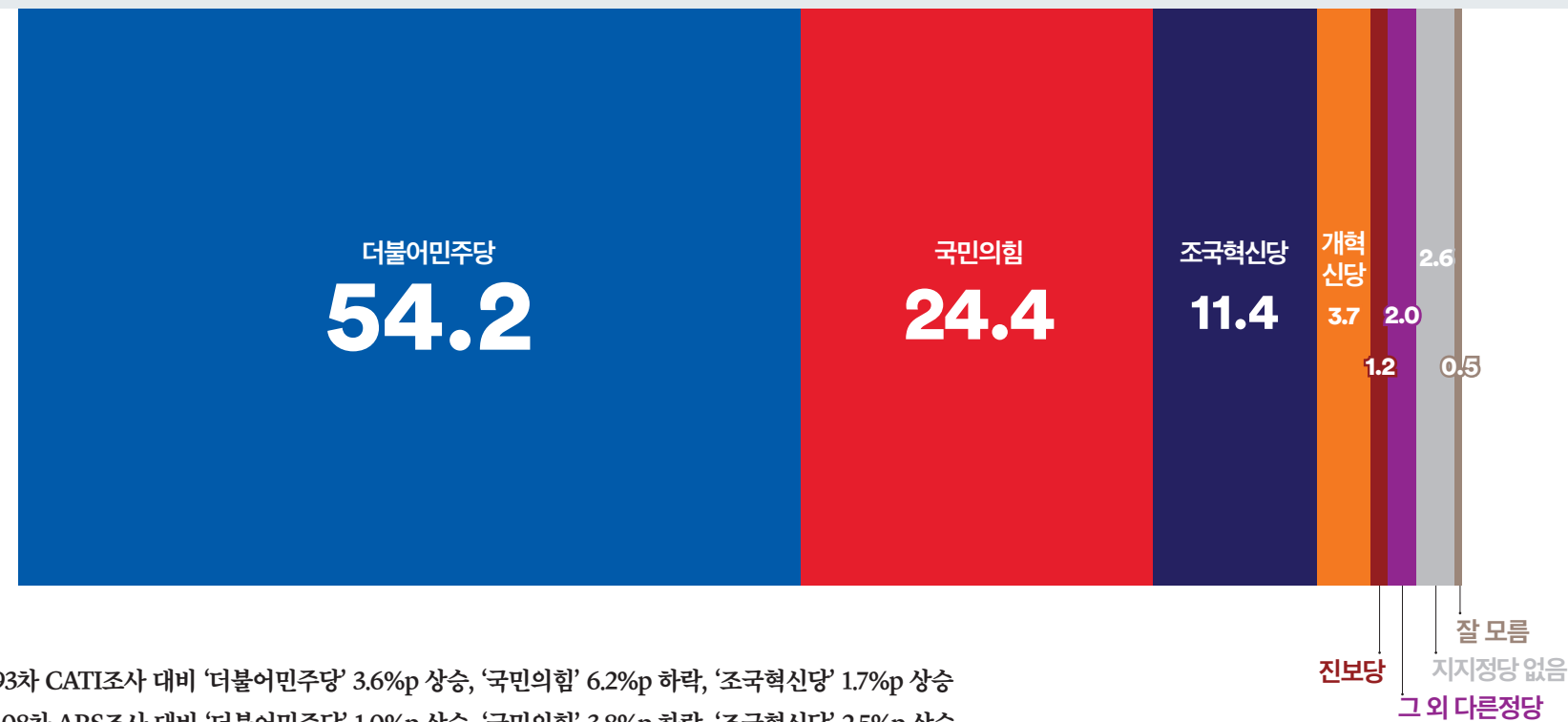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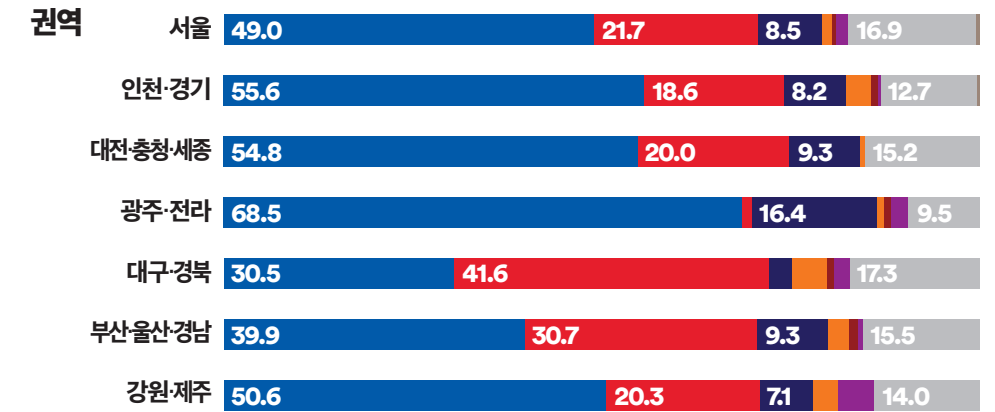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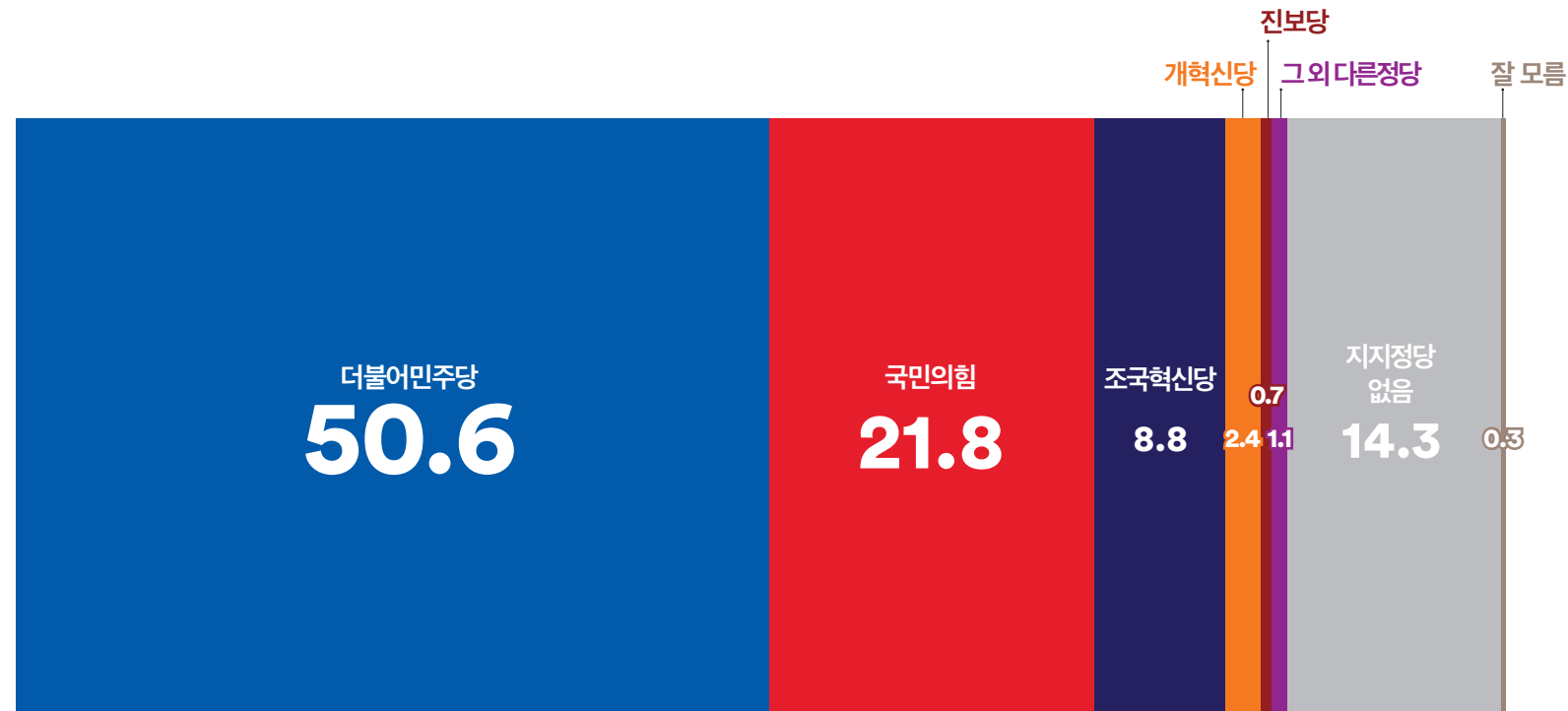


93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6%p 상승, '국민의힘' 6.2%p 하락, '조국혁신당' 1.7%p 상승
 108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0%p 상승, '국민의힘' 3.8%p 하락, '조국혁신당' 2.5%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8.8%p, ARS 29.8%p(지난 조사: CATI 19.0%p, ARS 25.0%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37.6%p, ARS 41.2%p(지난 조사: CATI 26.1%p, ARS 3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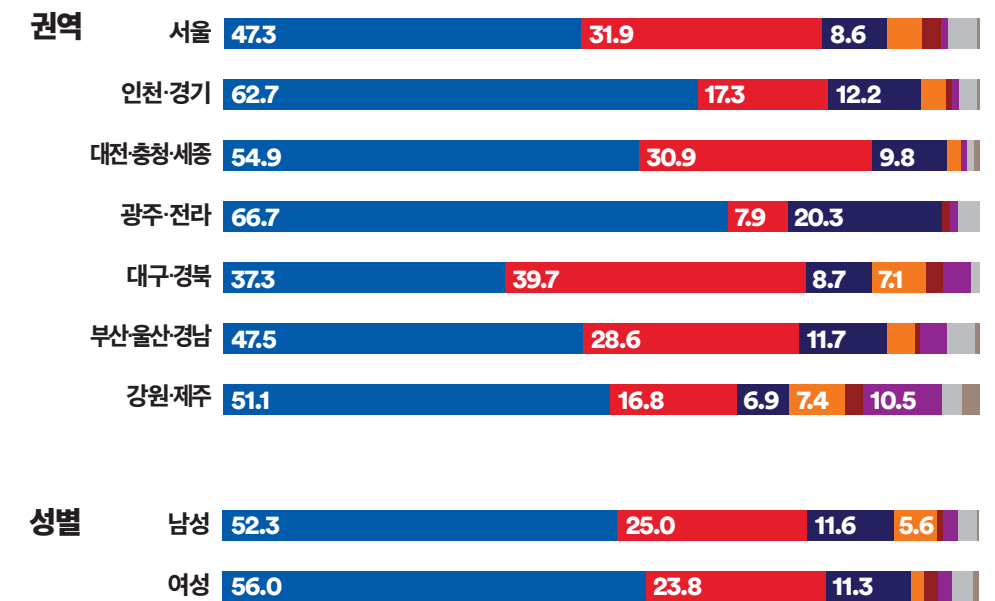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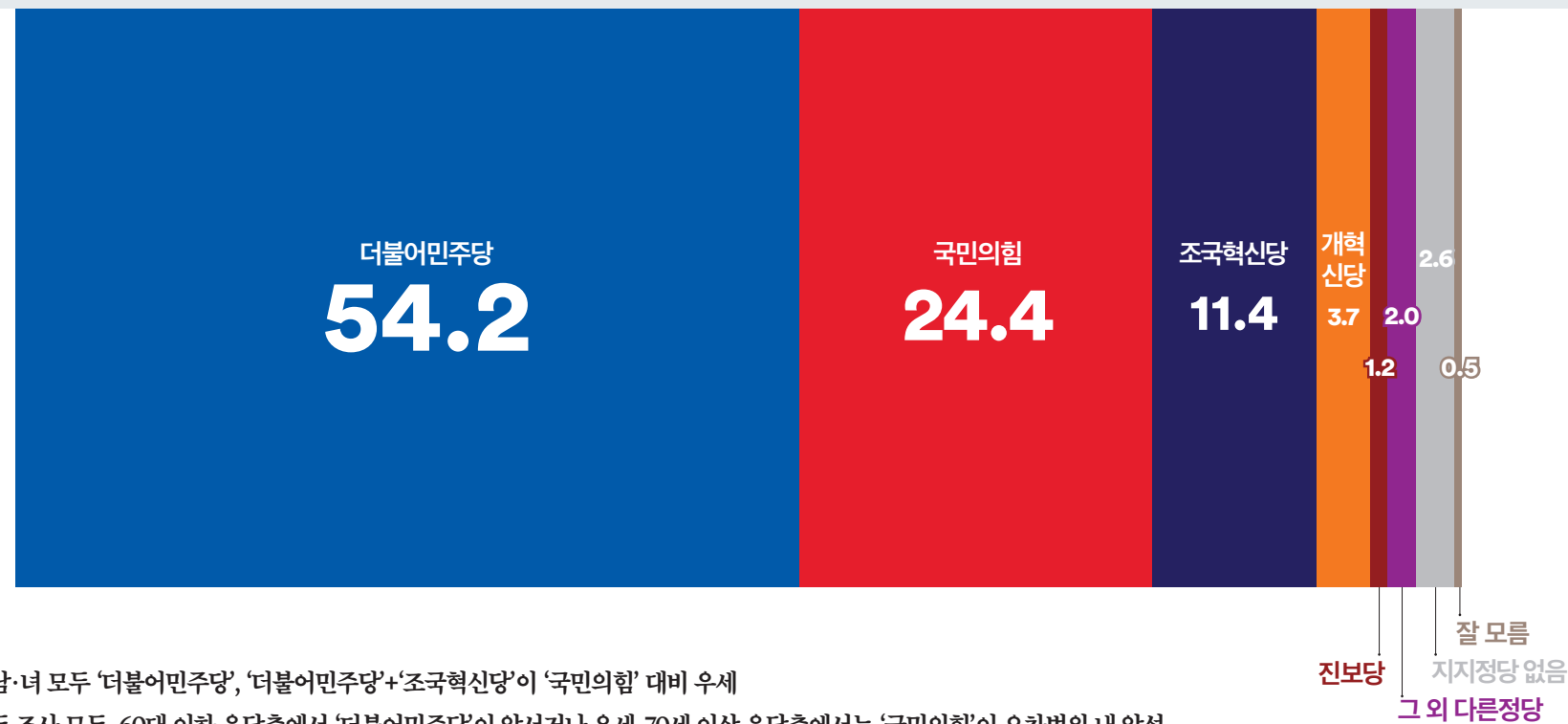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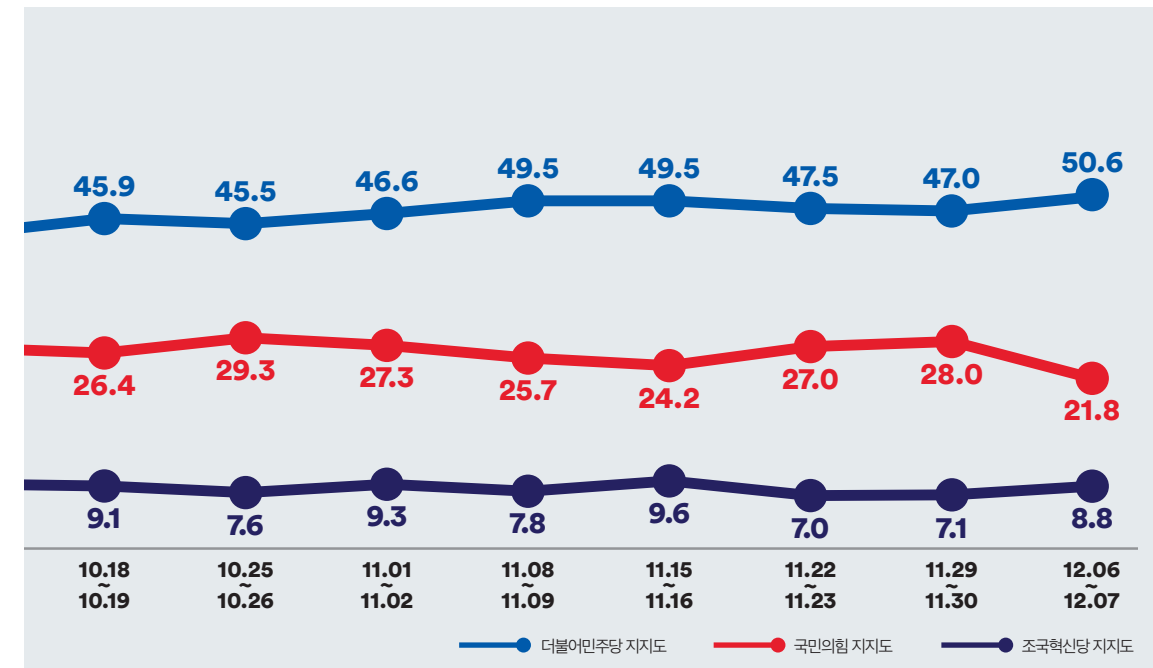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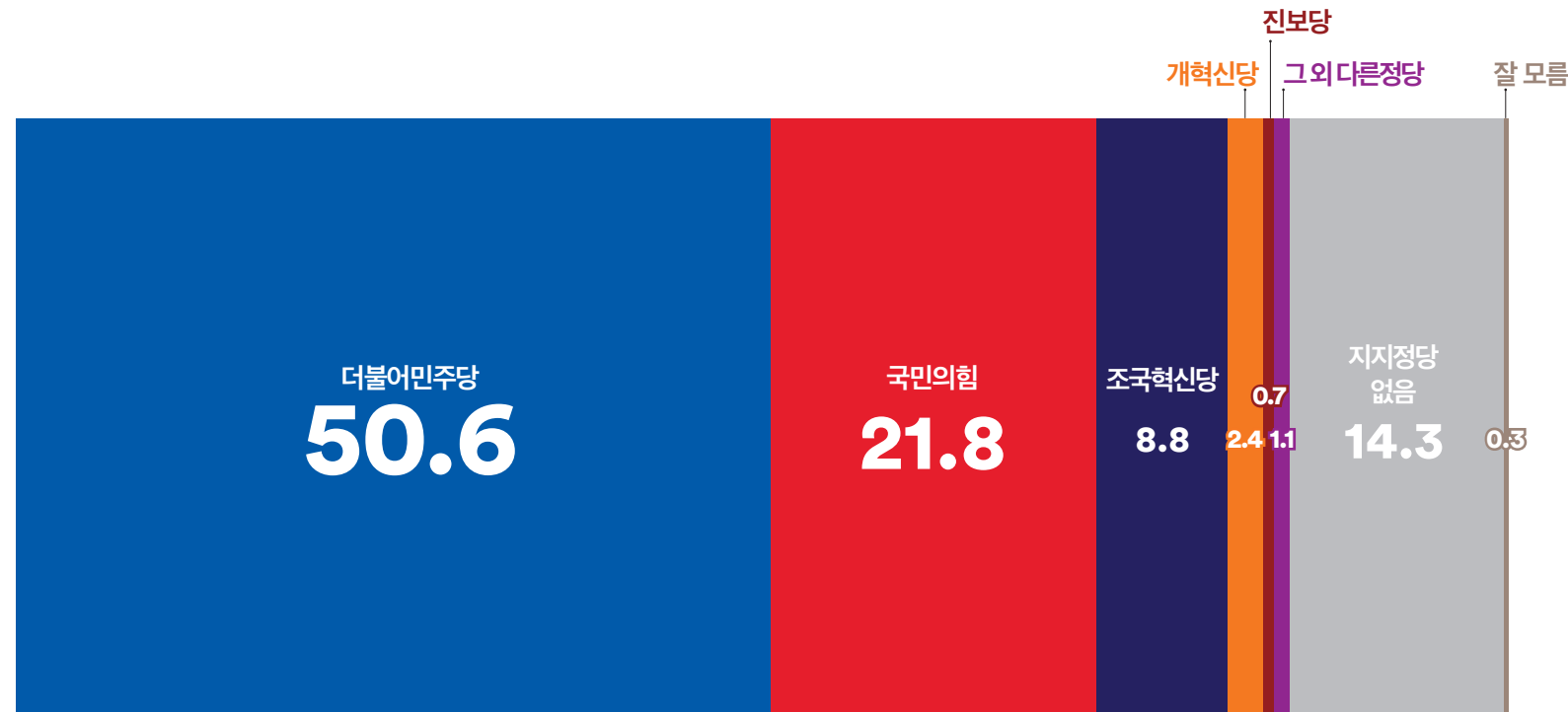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두 조사 모두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앞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CATI조사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ARS 조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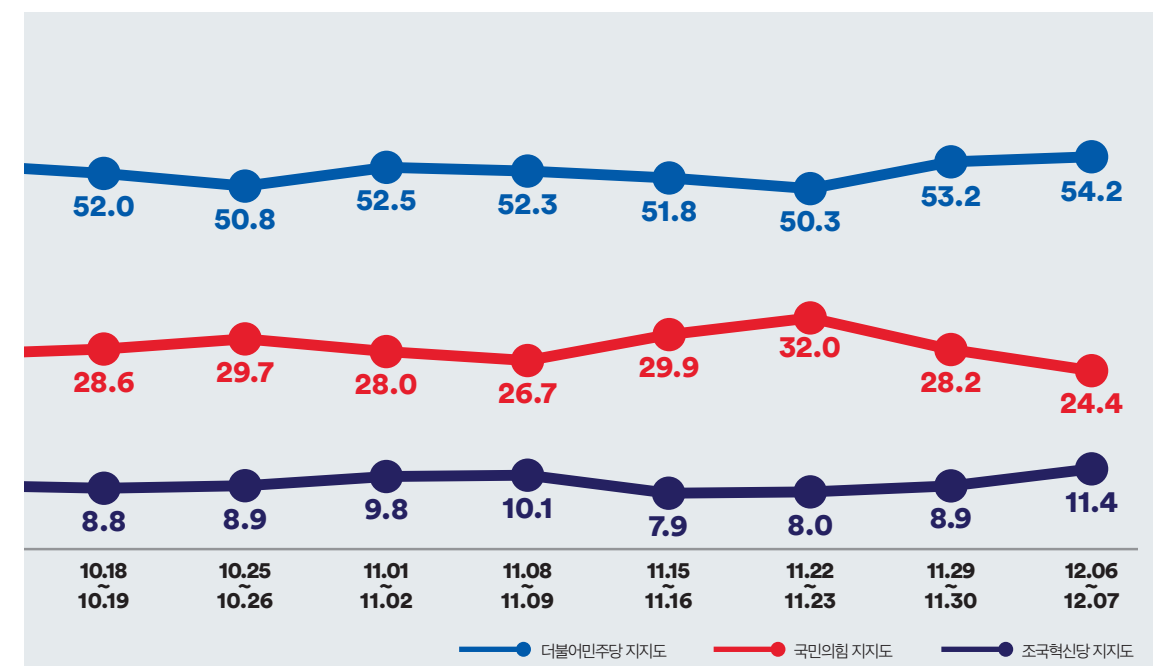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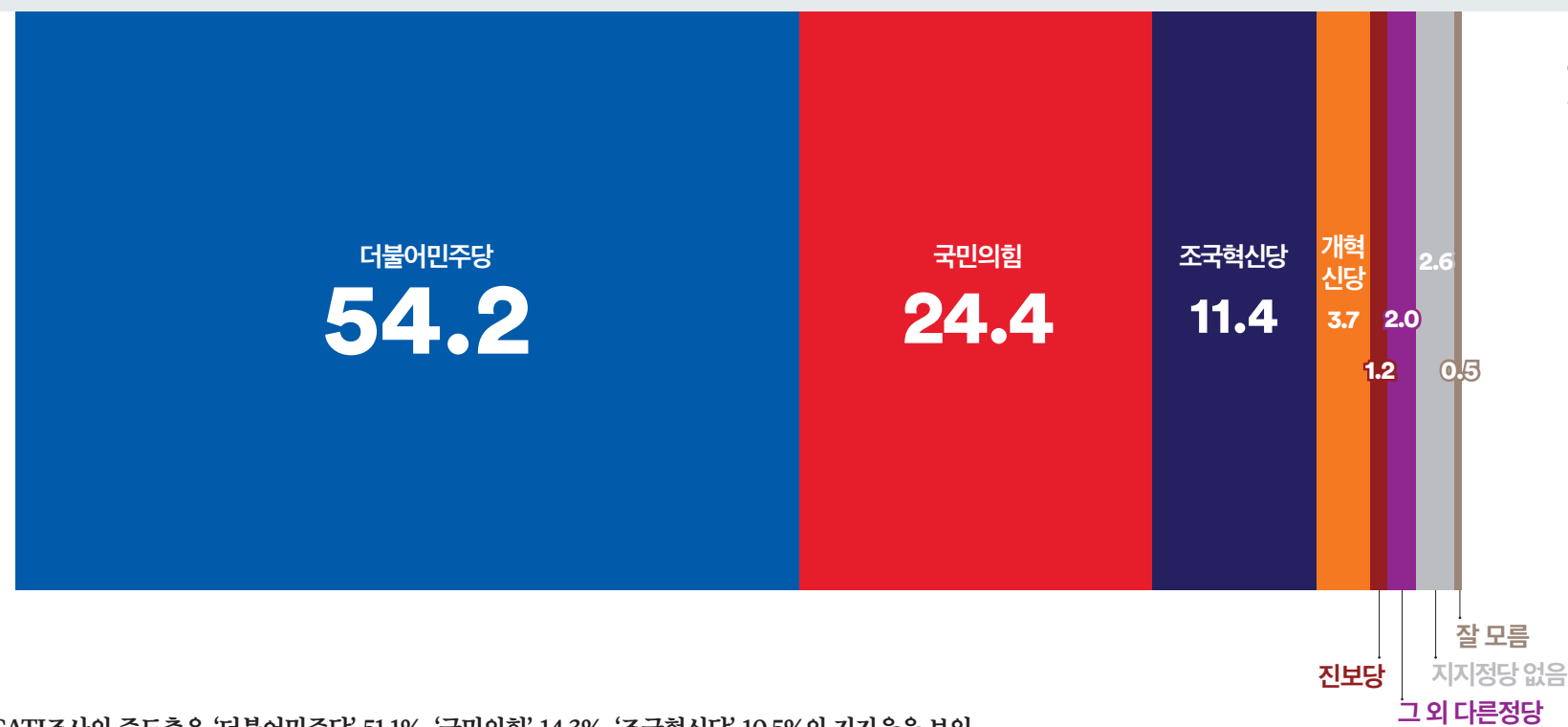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1.1%, '국민의힘' 14.3%, '조국혁신당' 10.5%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4.3%, '국민의힘' 21.7%, '조국혁신당' 11.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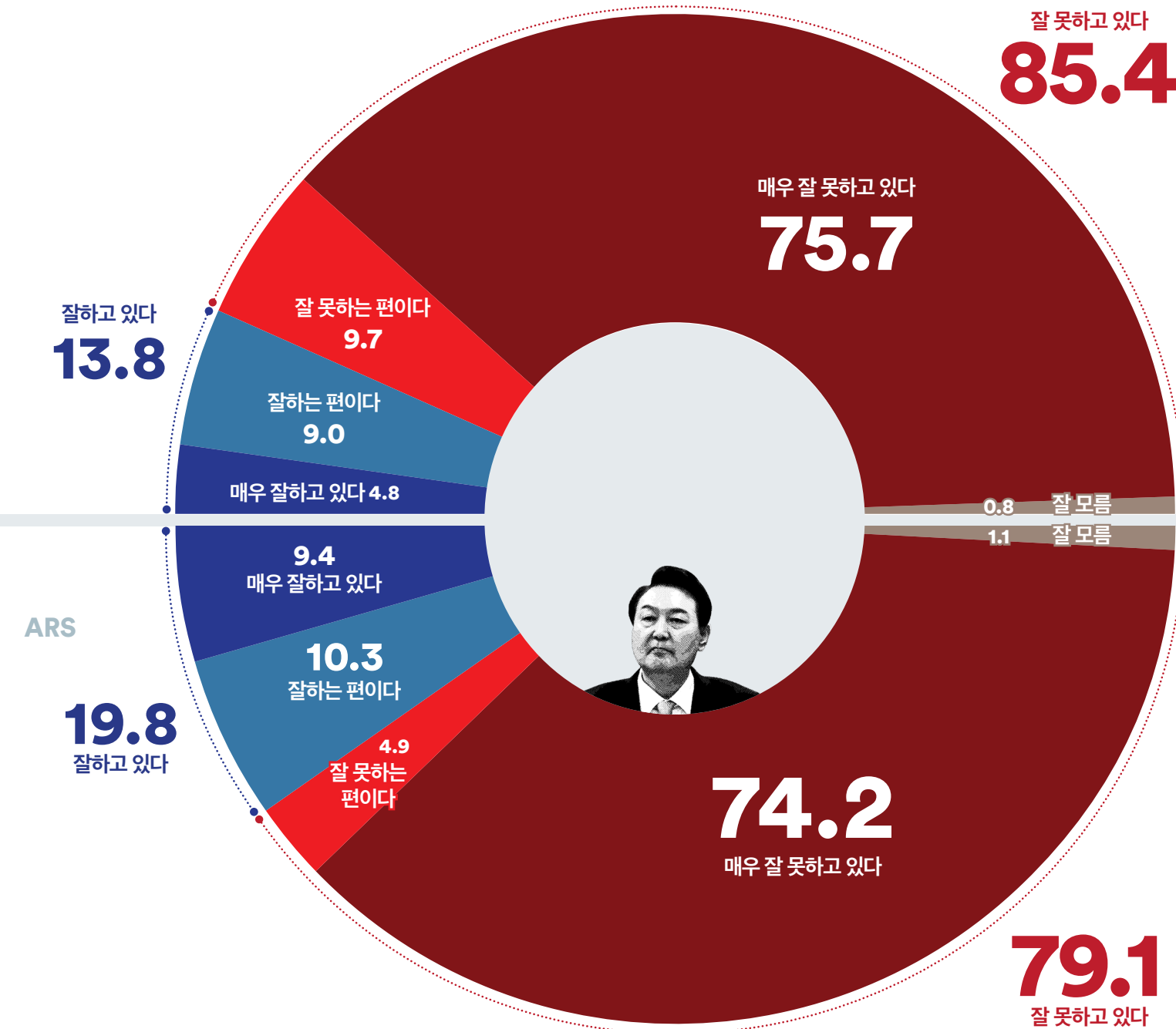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43.7%p(93차: 36.1%p), ARS 43.7%p(108차: 38.8%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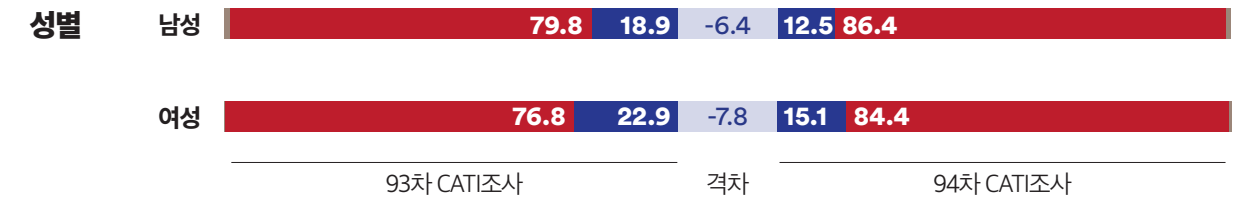


93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7.1%p 하락, '부정' 평가 7.1%p 상승(격차 71.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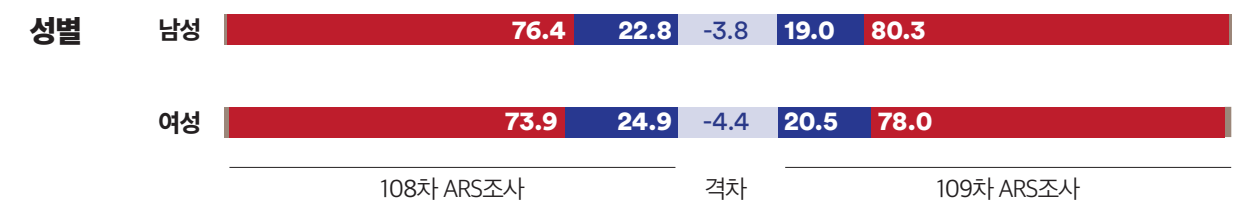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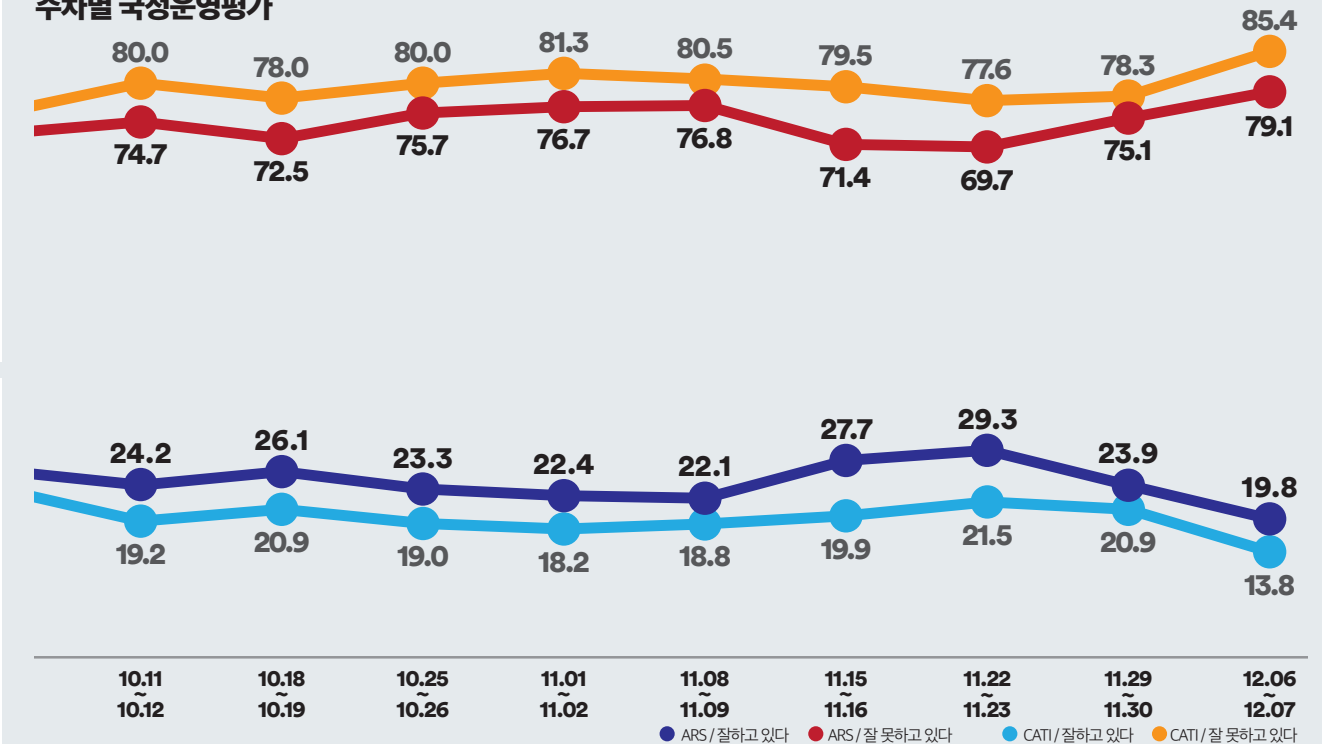
108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4.1%p 하락, '부정' 평가 4.0%p 상승(격차 59.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9.7%p(지난 조사: 73.1%p), ARS 64.0%p(지난 조사: 58.2%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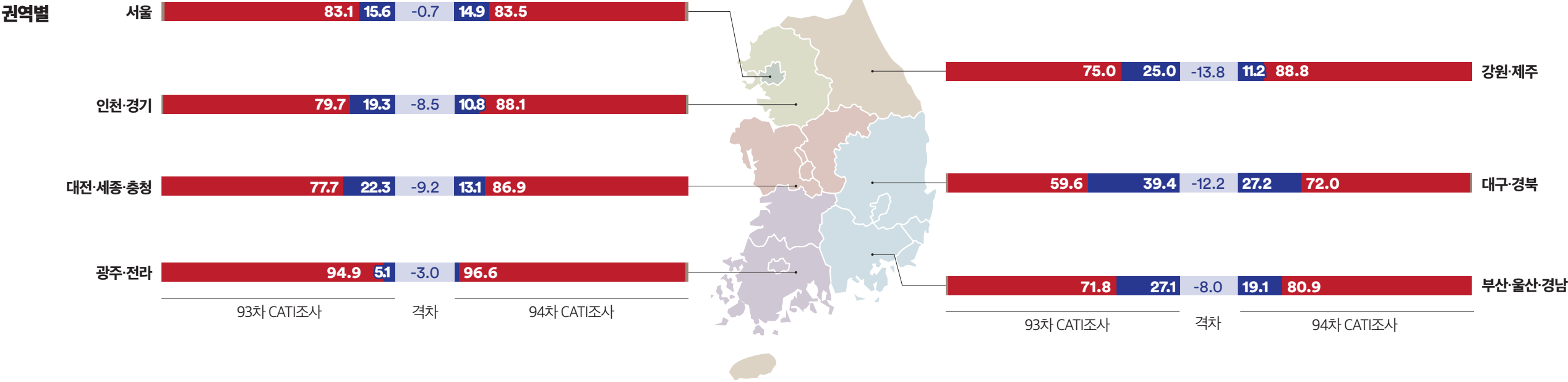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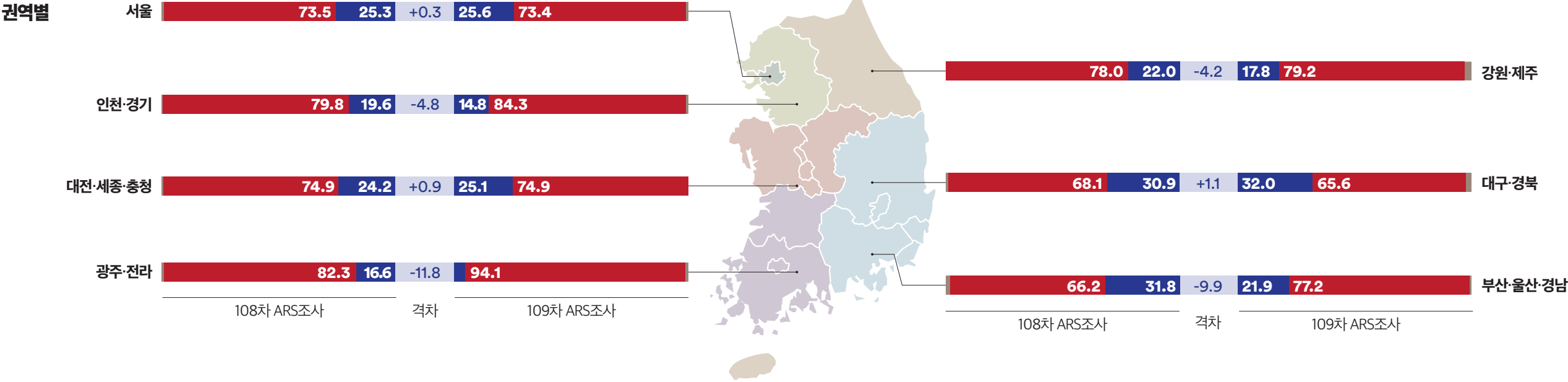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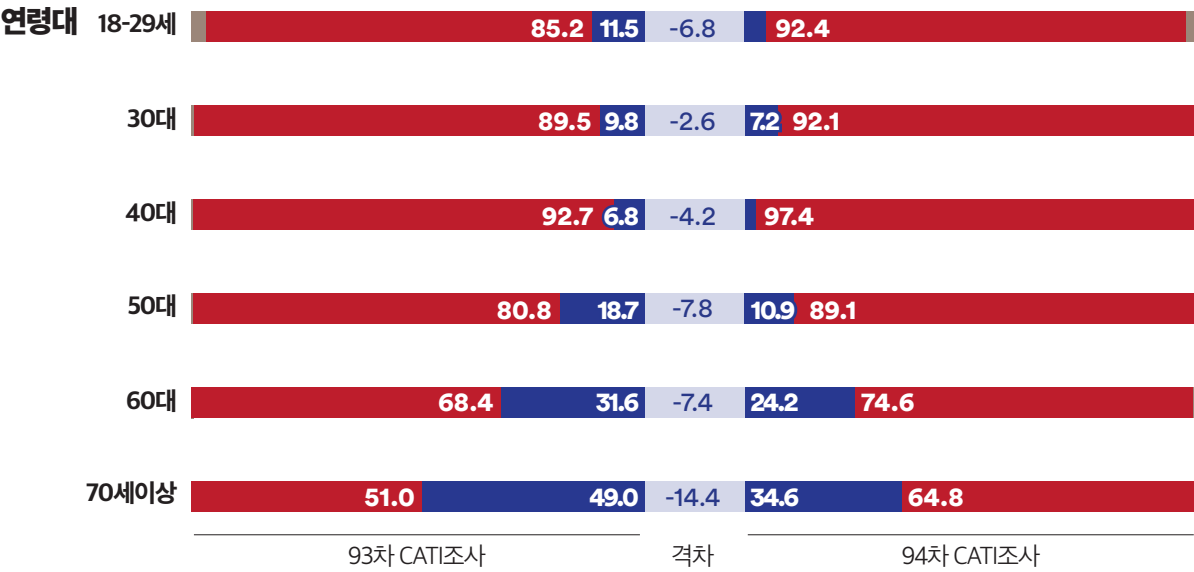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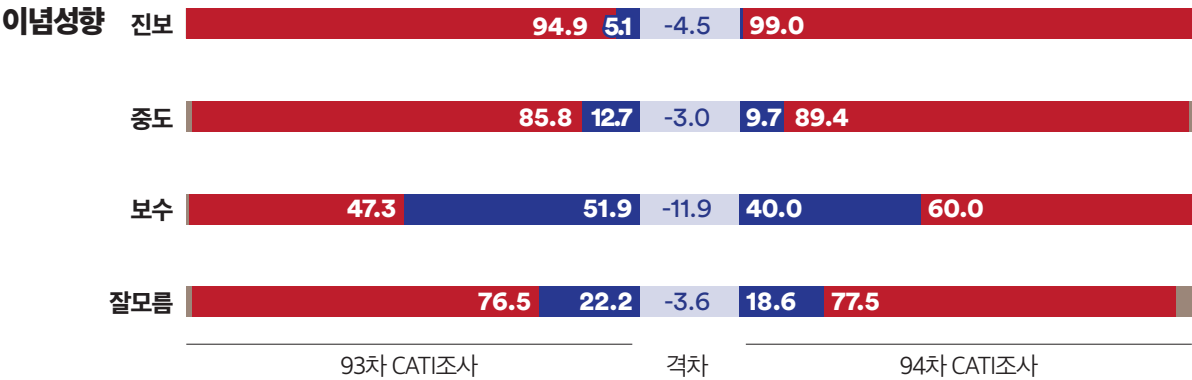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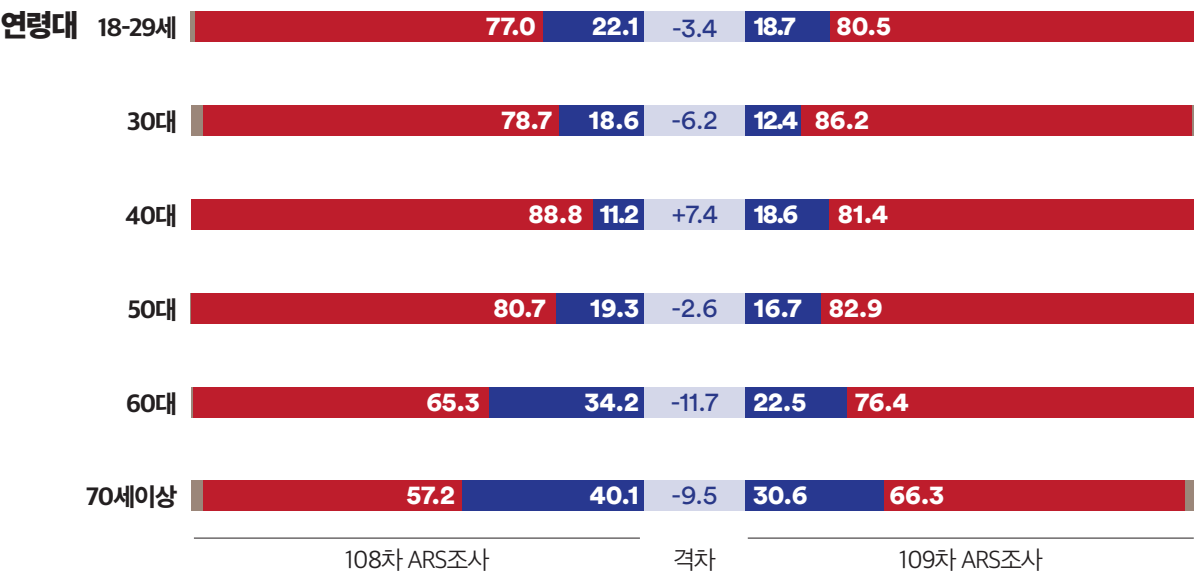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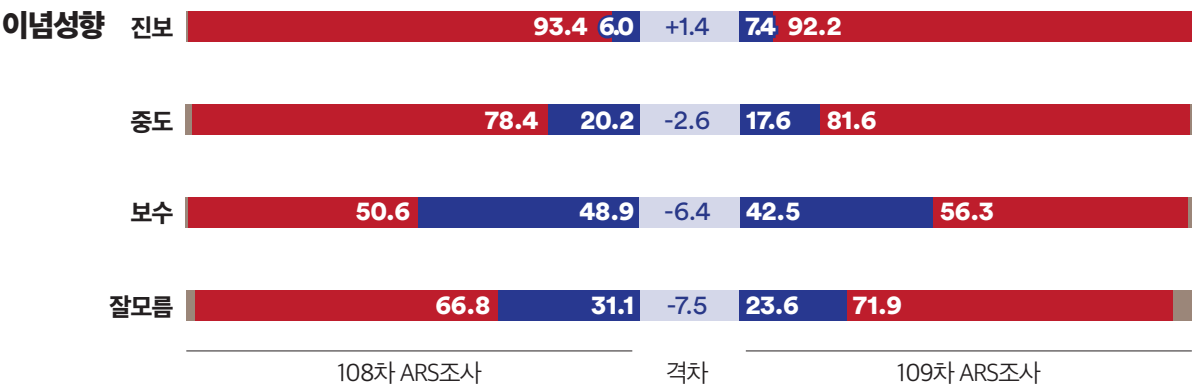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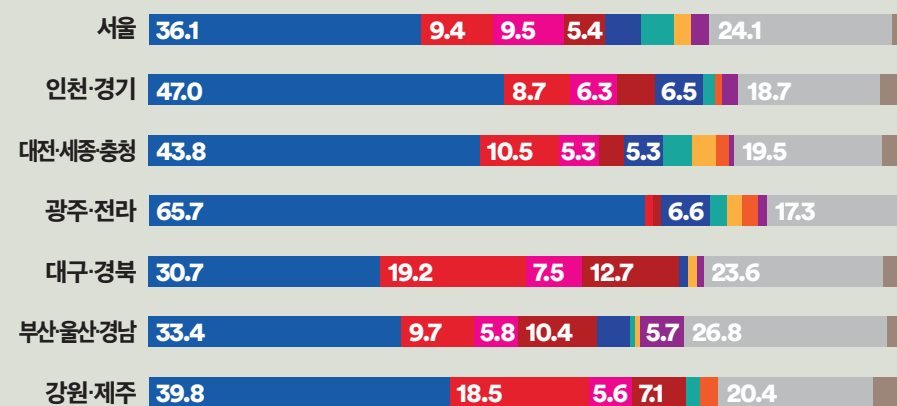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2.6%p)
모든 권역 및 30대 이상 응답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32.6%, ‘이재명’ 28.3%, ‘홍준표’ 11.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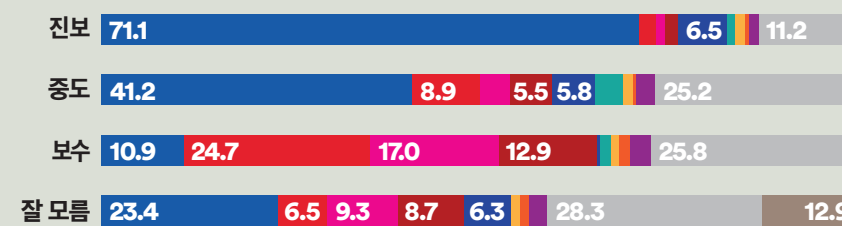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3.6%, ‘조국’ 2.9%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34.2%, ‘오세훈’ 23.6%, ‘홍준표’ 12.2%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조국’ 37.0%, ‘이재명’ 35.0%, ‘김동연’ 6.8%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1.1%, ‘없음’ 11.2%, ‘조국’ 6.5% 순
중도층은 ‘이재명’ 41.2%, ‘없음’ 25.2%, ‘한동훈’ 8.9% 순
보수층은 ‘없음’ 25.8%, ‘한동훈’ 24.7%, ‘오세훈’ 17.0%, ‘홍준표’ 12.9%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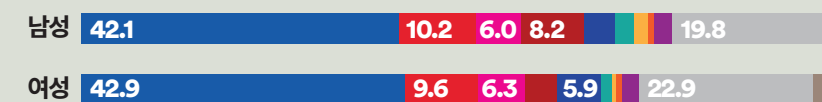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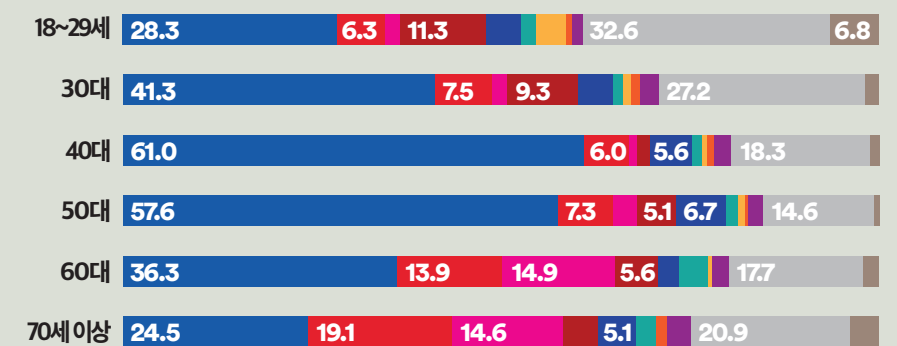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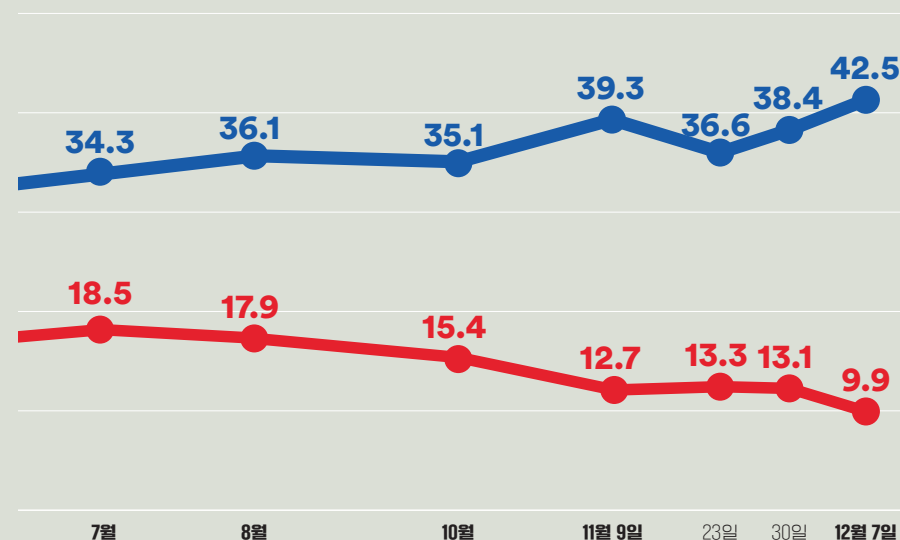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2.6%p)
모든 권역 및 30대 이상 응답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32.6%, ‘이재명’ 28.3%, ‘홍준표’ 11.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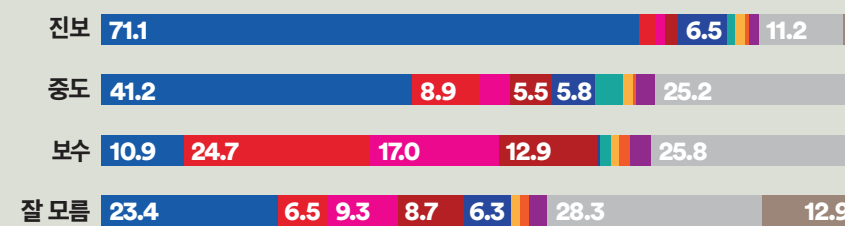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3.6%, ‘조국’ 2.9%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34.2%, ‘오세훈’ 23.6%, ‘홍준표’ 12.2%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조국’ 37.0%, ‘이재명’ 35.0%, ‘김동연’ 6.8%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1.1%, ‘없음’ 11.2%, ‘조국’ 6.5% 순
중도층은 ‘이재명’ 41.2%, ‘없음’ 25.2%, ‘한동훈’ 8.9% 순
보수층은 ‘없음’ 25.8%, ‘한동훈’ 24.7%, ‘오세훈’ 17.0%, ‘홍준표’ 12.9%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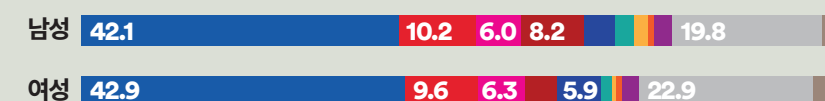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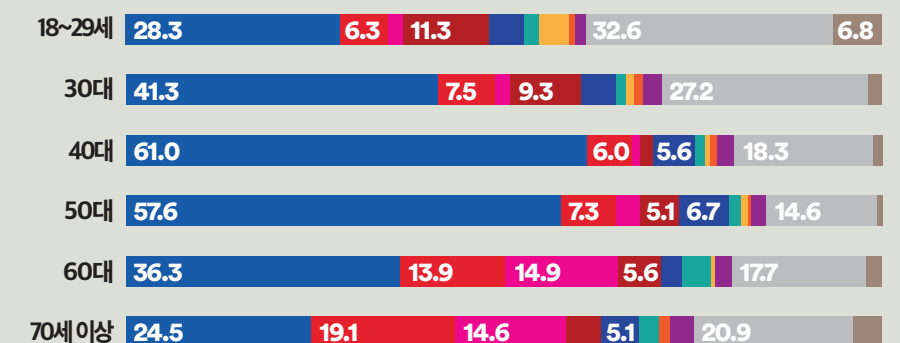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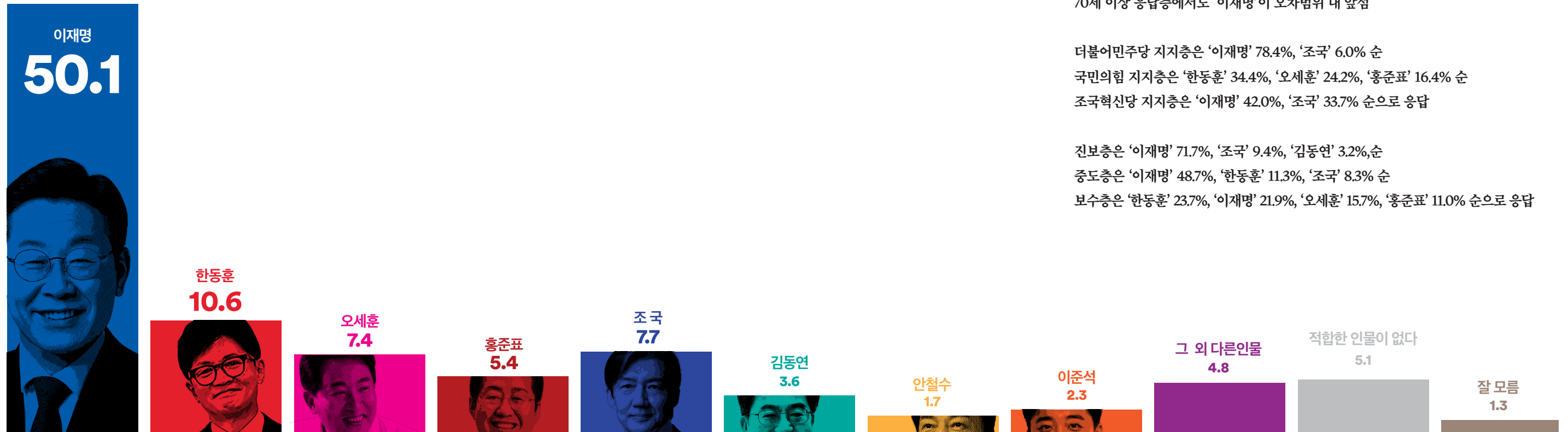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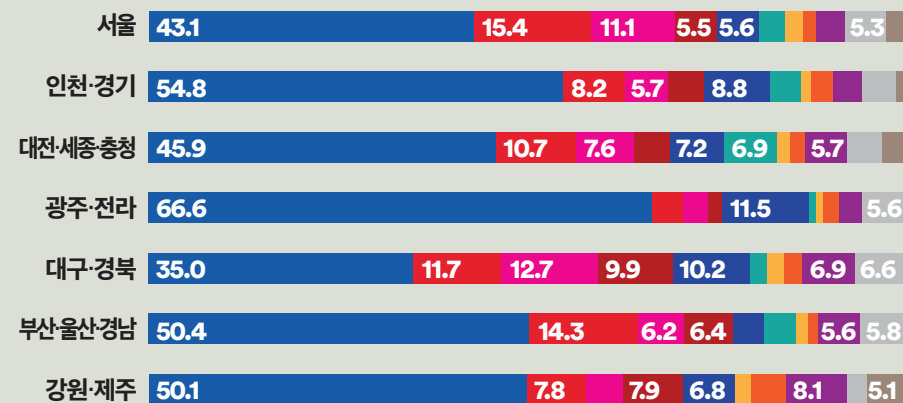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9.5%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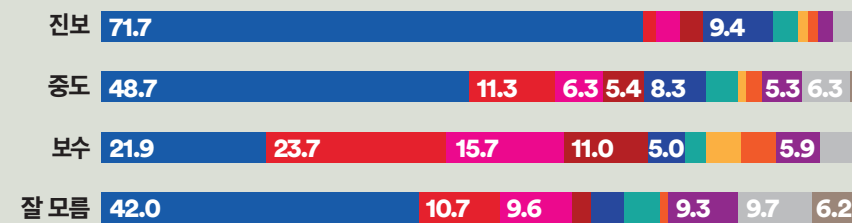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8.4%, ‘조국’ 6.0%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34.4%, ‘오세훈’ 24.2%, ‘홍준표’ 16.4%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2.0%, ‘조국’ 33.7%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1.7%, ‘조국’ 9.4%, ‘김동연’ 3.2% 순
중도층은 ‘이재명’ 48.7%, ‘한동훈’ 11.3%, ‘조국’ 8.3% 순
보수층은 ‘한동훈’ 23.7%, ‘이재명’ 21.9%, ‘오세훈’ 15.7%, ‘홍준표’ 11.0%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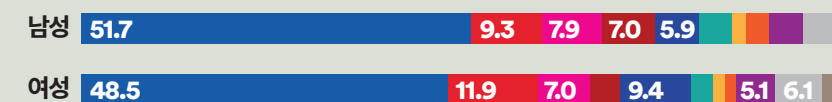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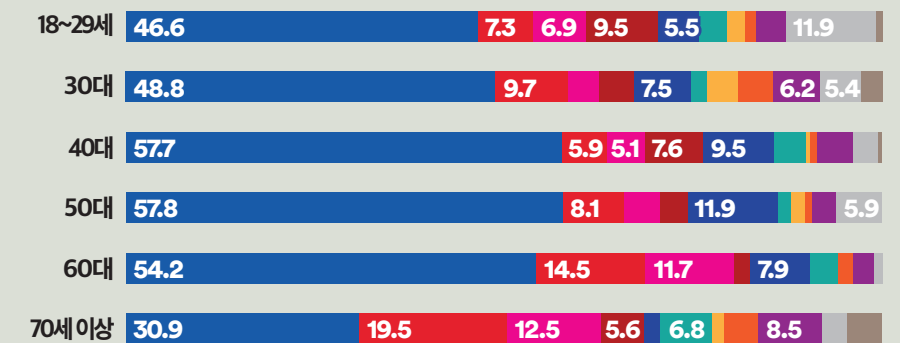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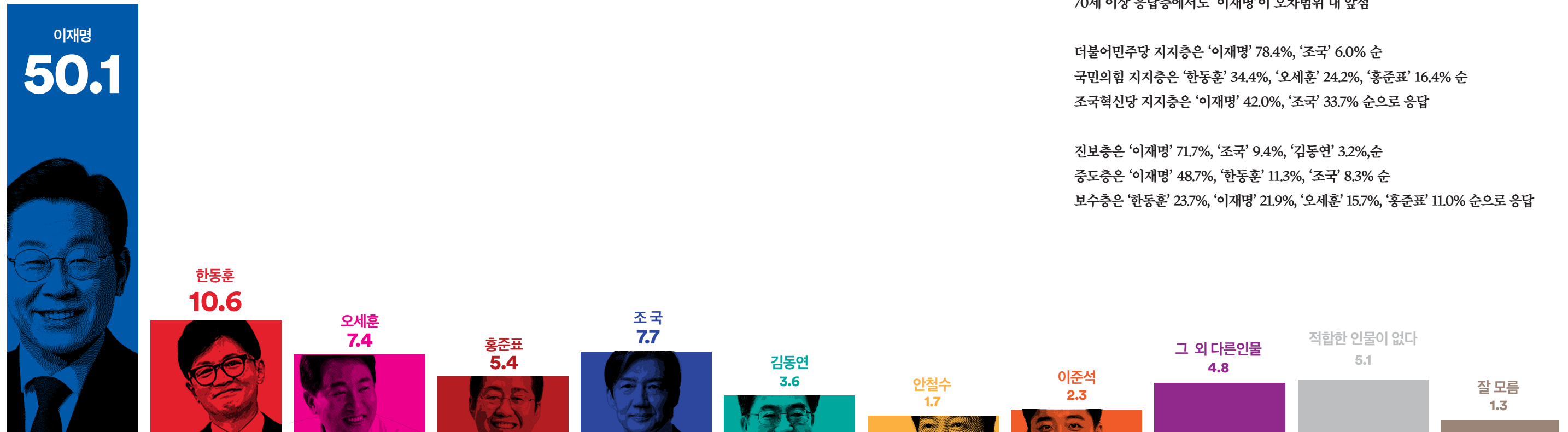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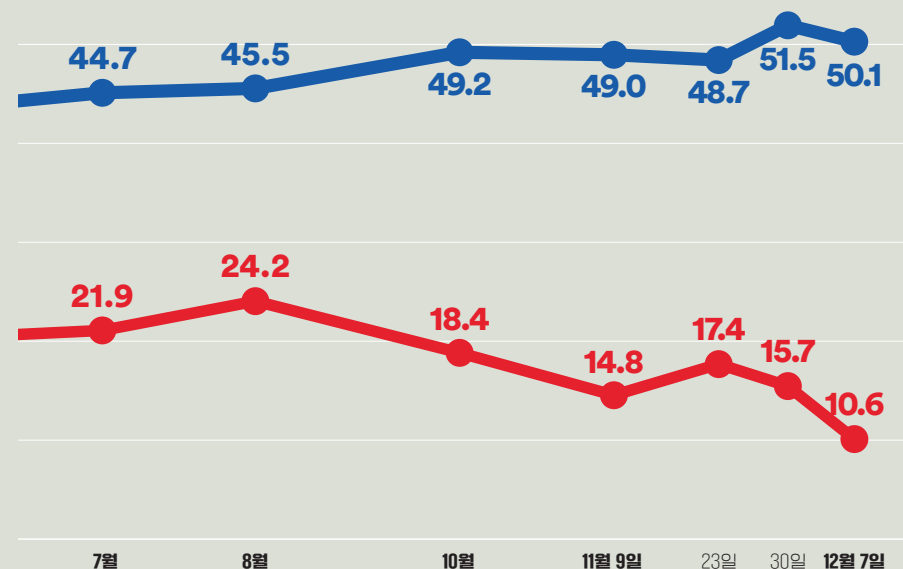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9.5%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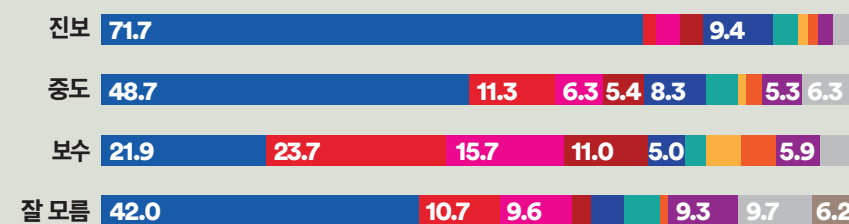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8.4%, ‘조국’ 6.0%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34.4%, ‘오세훈’ 24.2%, ‘홍준표’ 16.4%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2.0%, ‘조국’ 33.7%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1.7%, ‘조국’ 9.4%, ‘김동연’ 3.2%, 순
중도층은 ‘이재명’ 48.7%, ‘한동훈’ 11.3%, ‘조국’ 8.3% 순
보수층은 ‘한동훈’ 23.7%, ‘이재명’ 21.9%, ‘오세훈’ 15.7%, ‘홍준표’ 11.0%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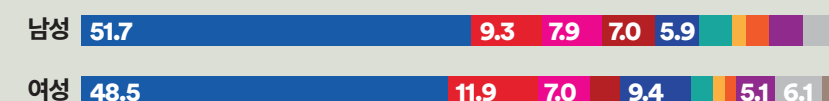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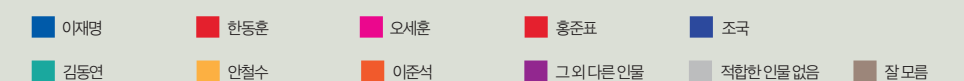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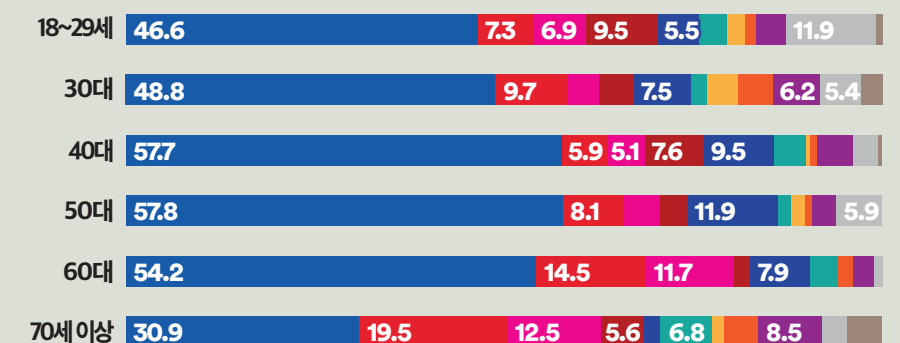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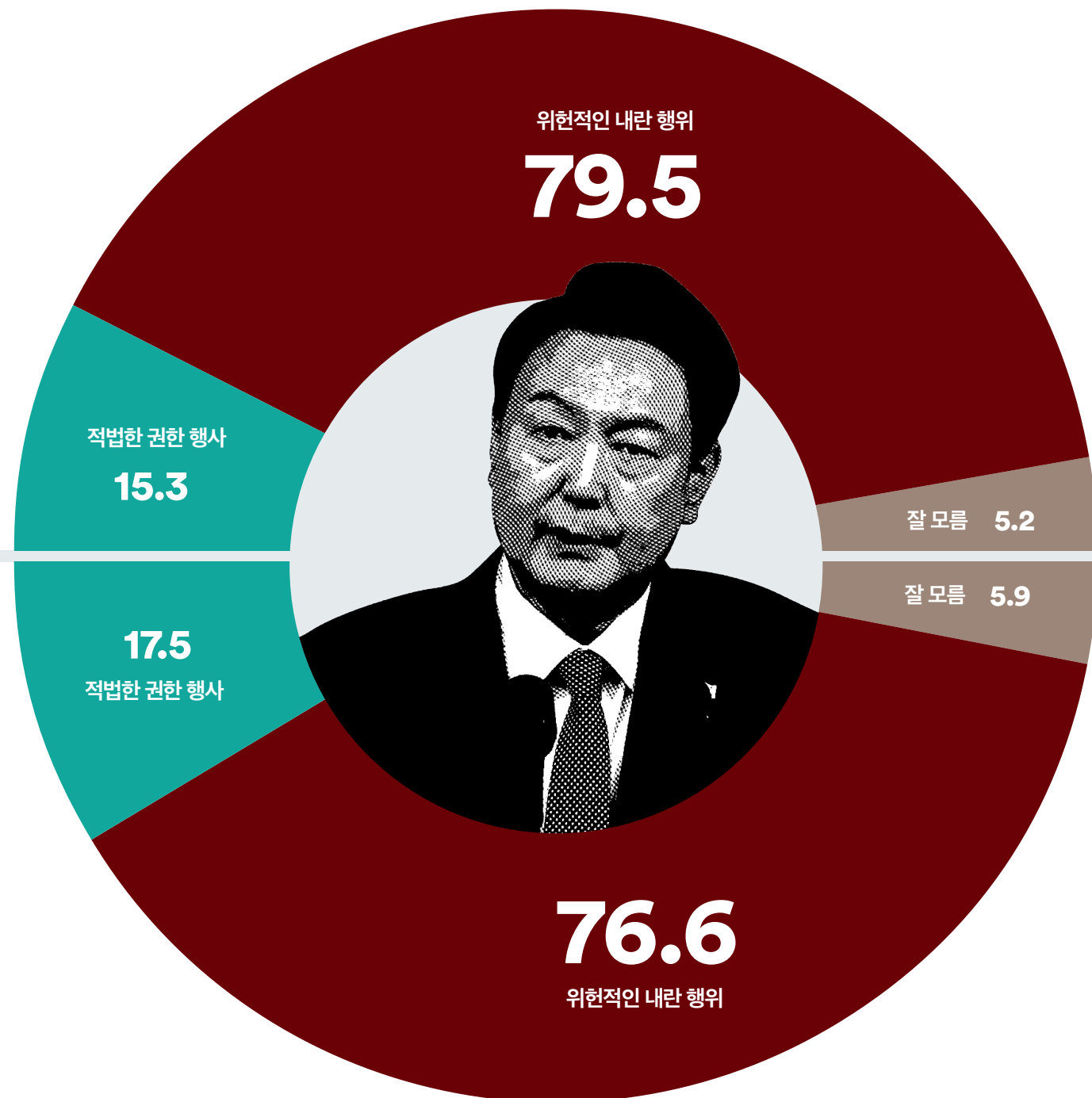
연령



Q.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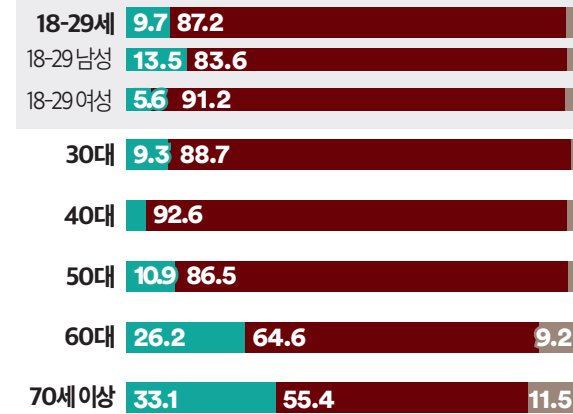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64.2%p, ARS 59.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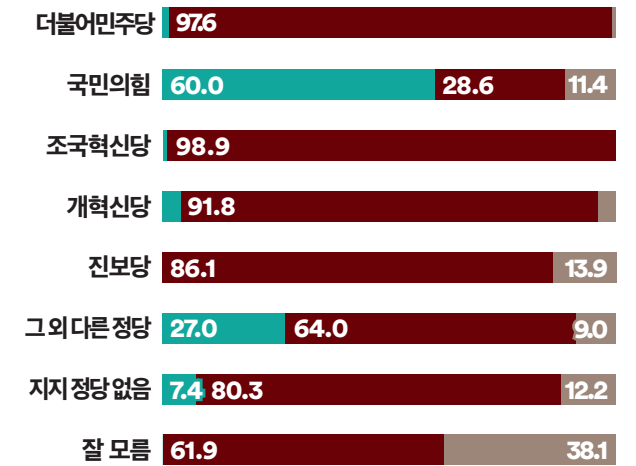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모든 권역과 연령대, 남·녀 모두 '내란'이라고 답한 응답이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 조사에서는 두 응답의 비율이 비등했고, ARS조사에서는 '내란'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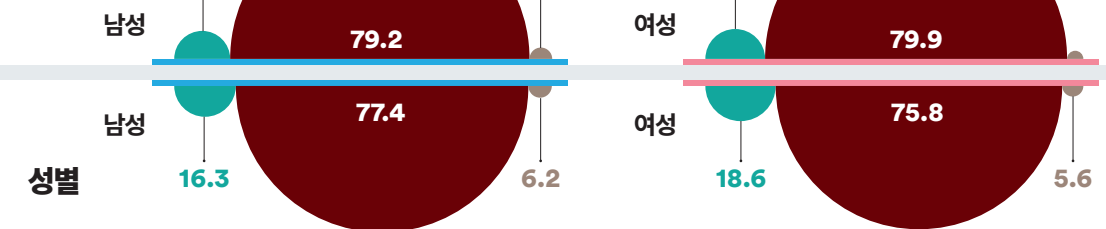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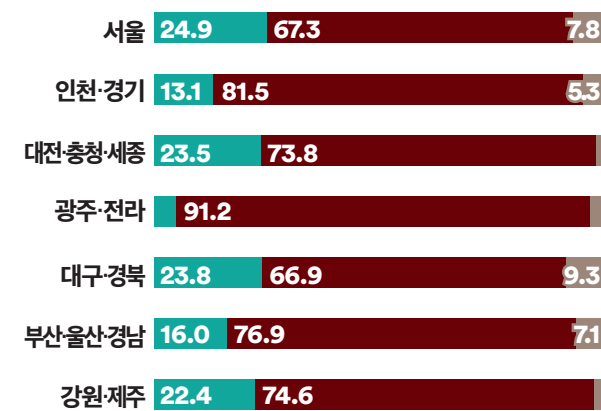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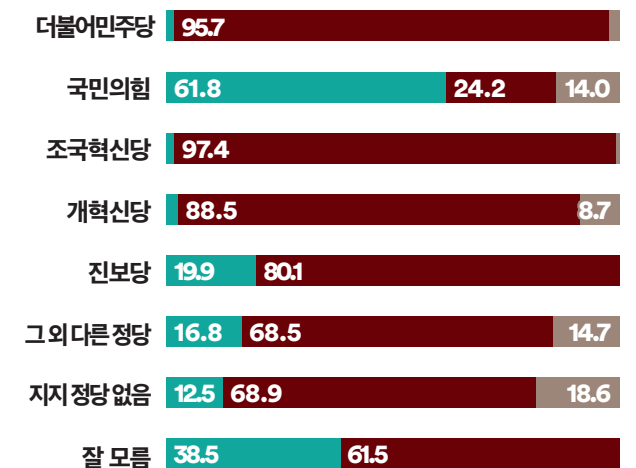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적법한 권한 행사 위헌적인 내란 행위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
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7일 사과담화 내용 발췌]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

66.6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

31.0

잘 모름
2.4

ARS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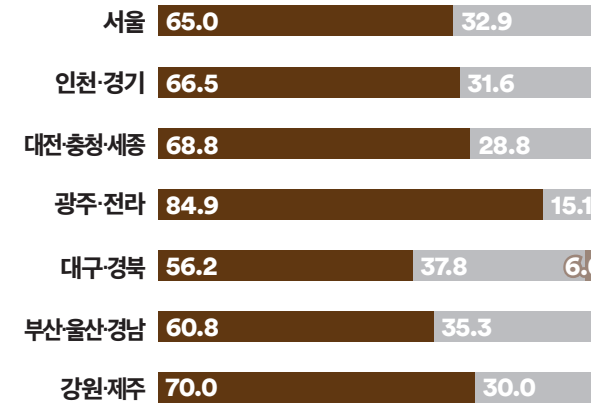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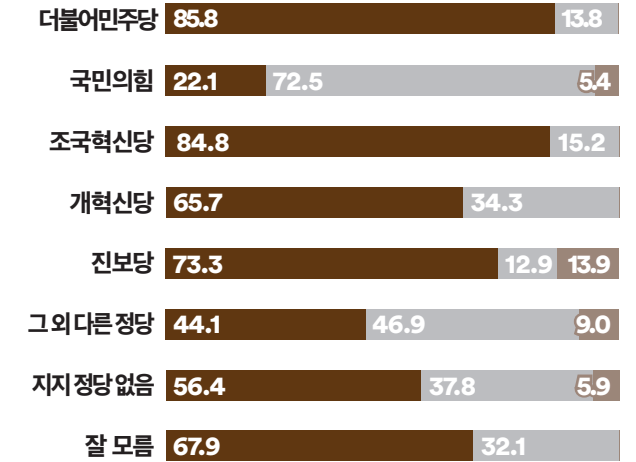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

잘 모름
6.2

권역



정당지지도



성별

남성

67.4

30.0

남성

67.5

27.5

성별

여성

65.8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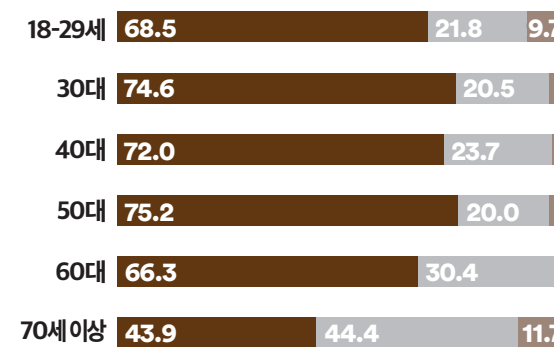
여성

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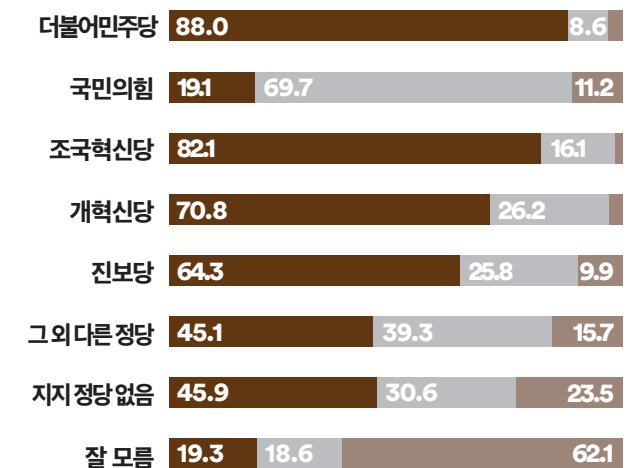
25.4

7.4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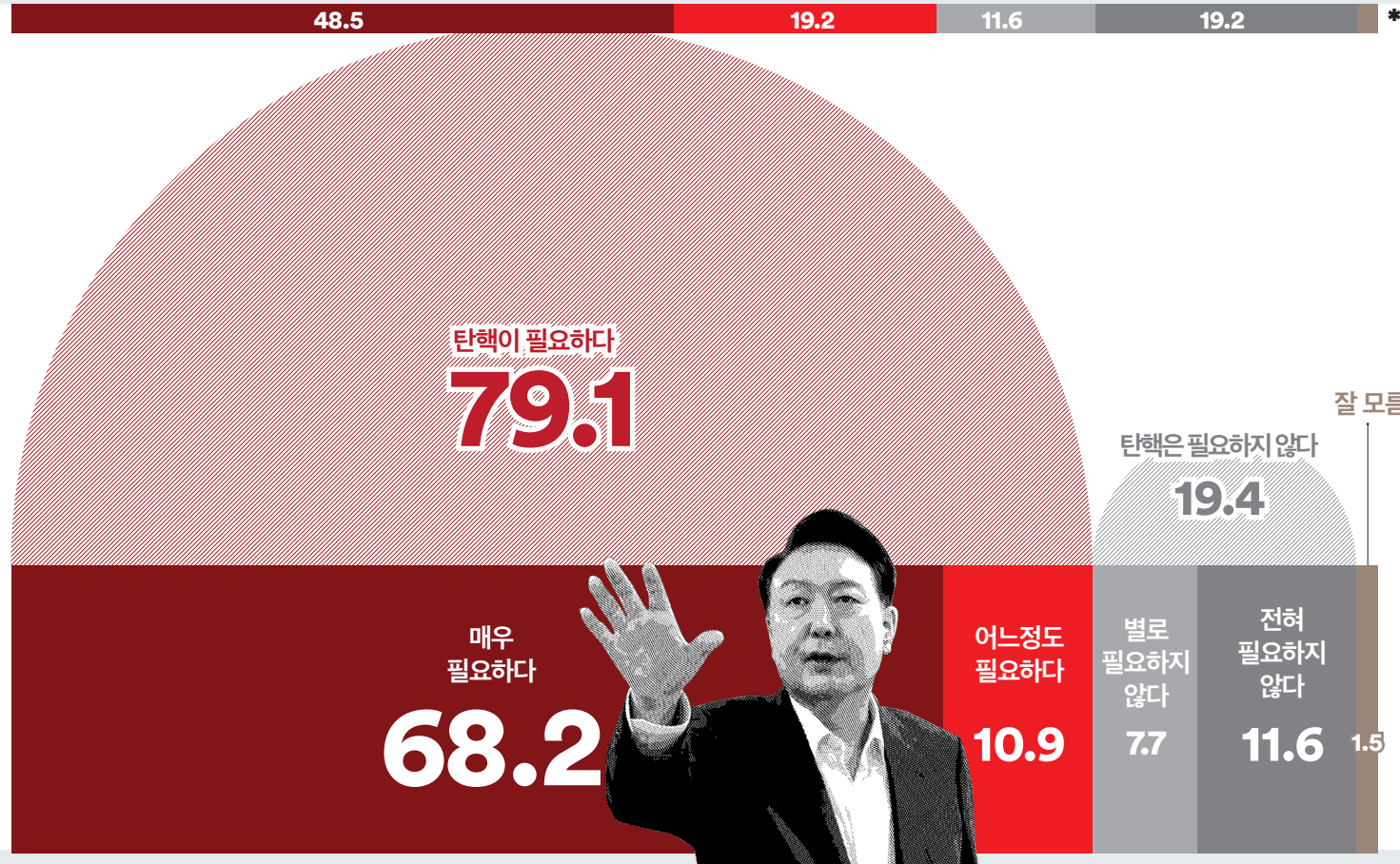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비상계엄을 또 다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모든 권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 보수층의 10명 중 5명 이상은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은 없다’고 응답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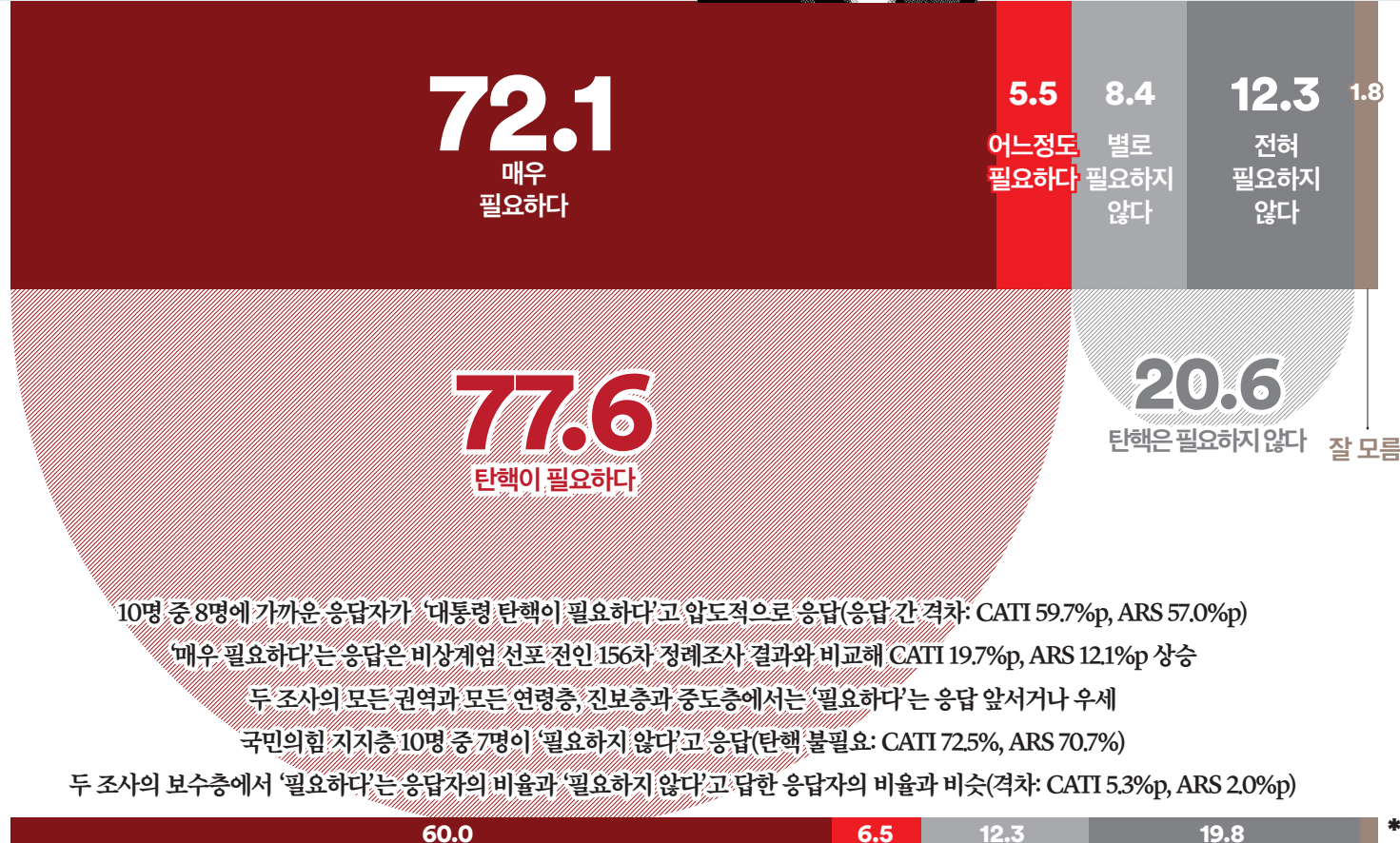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59.7%p, ARS 5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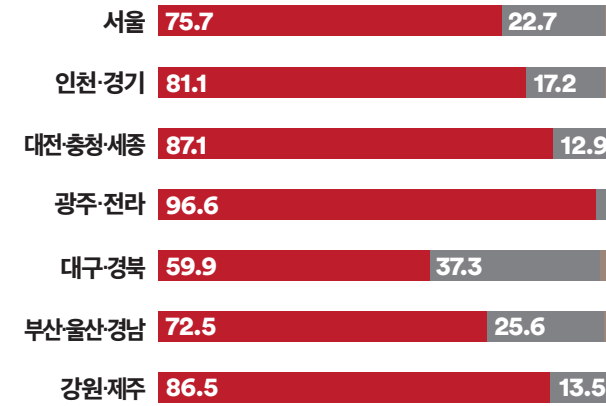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156차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CATI 19.7%p, ARS 12.1%p 상승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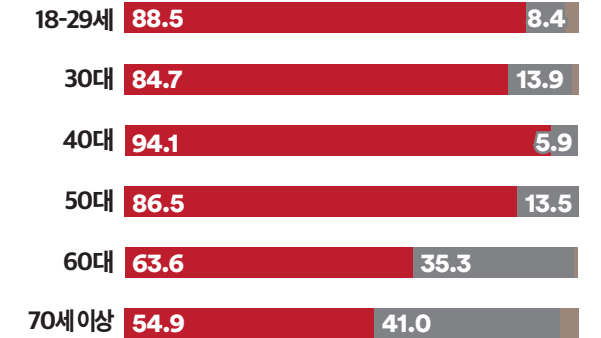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7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탄핵 불필요: CATI 72.5%, ARS 70.7%)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과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과 비슷(격차: CATI 5.3%p, ARS 2.0%p)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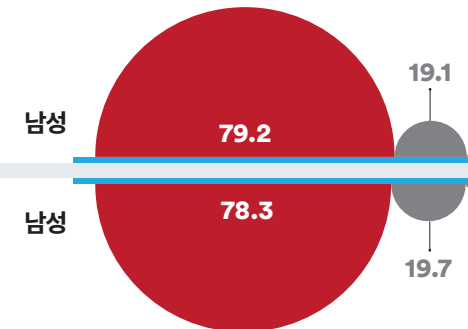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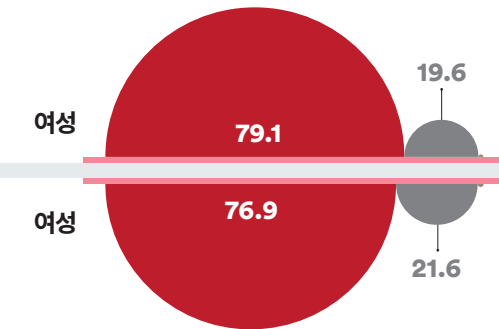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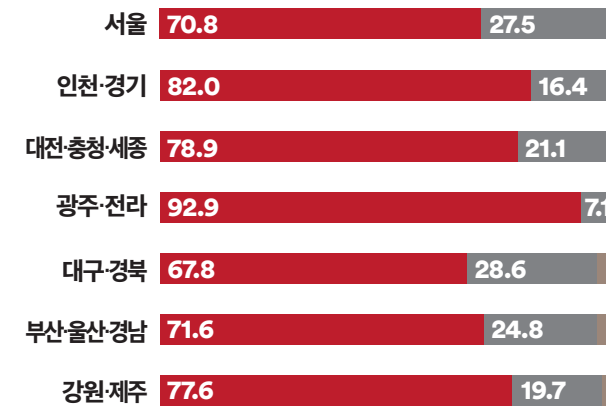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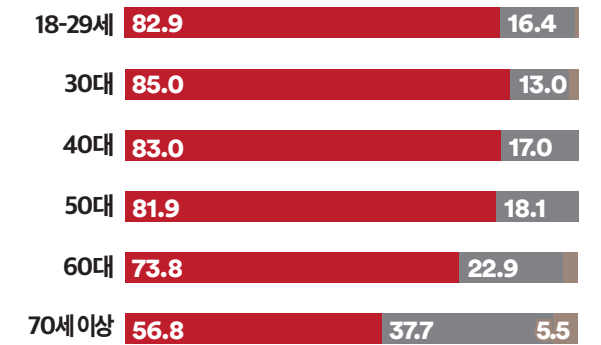
여성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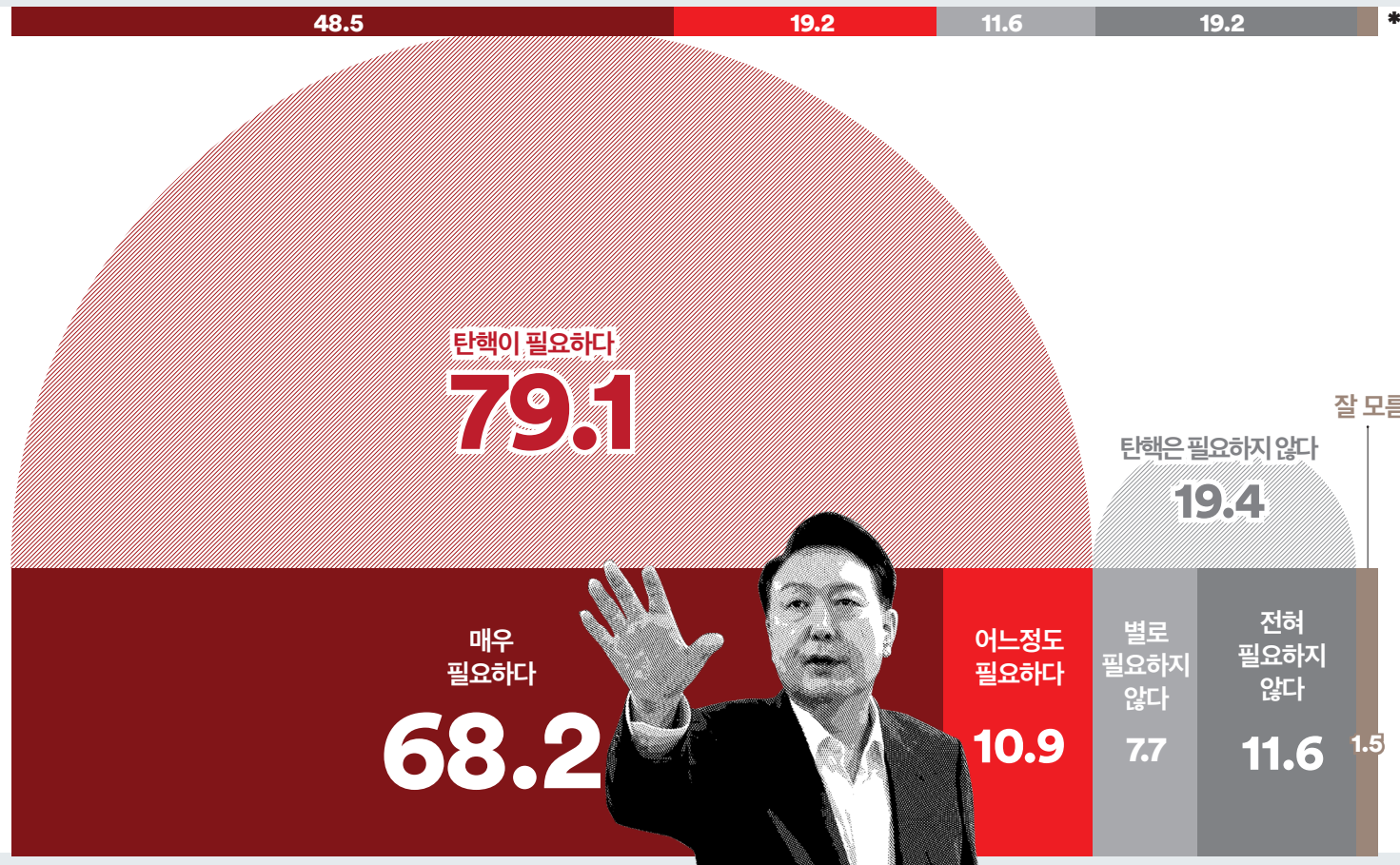
*정례 156차 탄핵필요성

■ 탄핵이 필요하다 ■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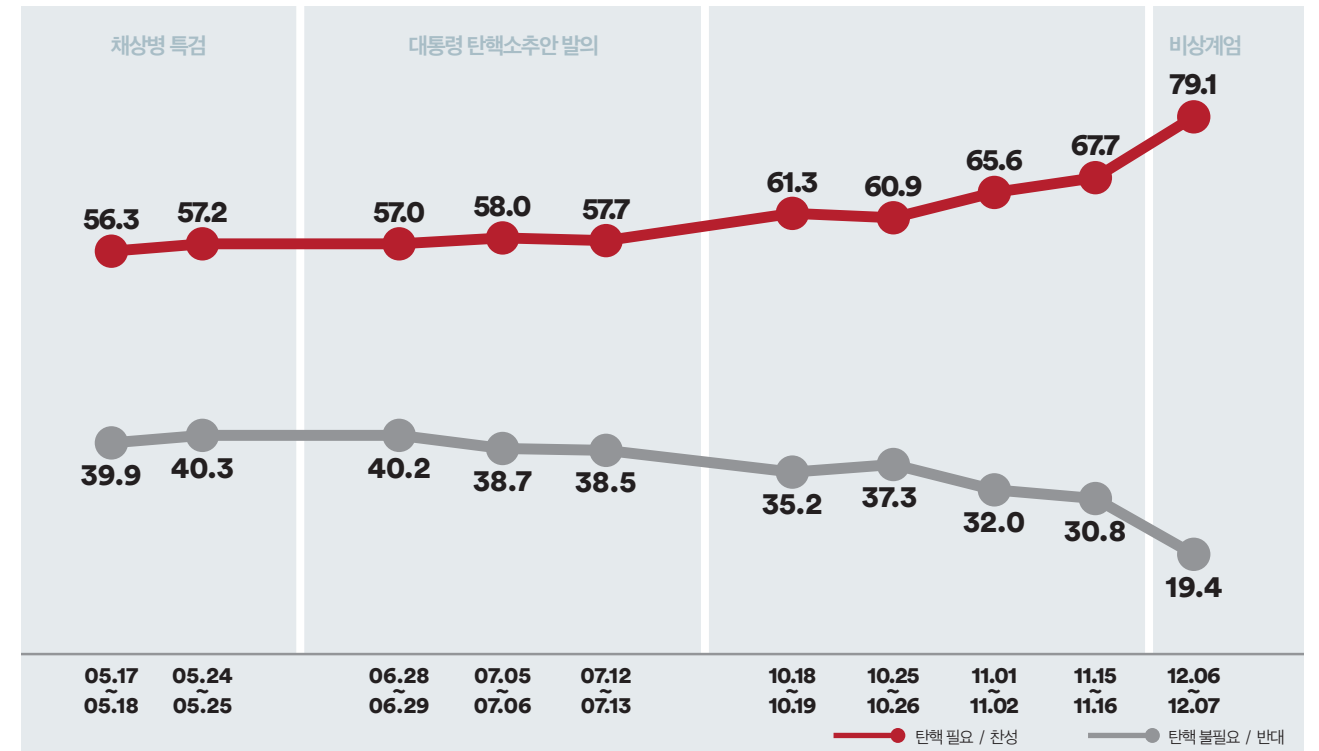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탄핵필요성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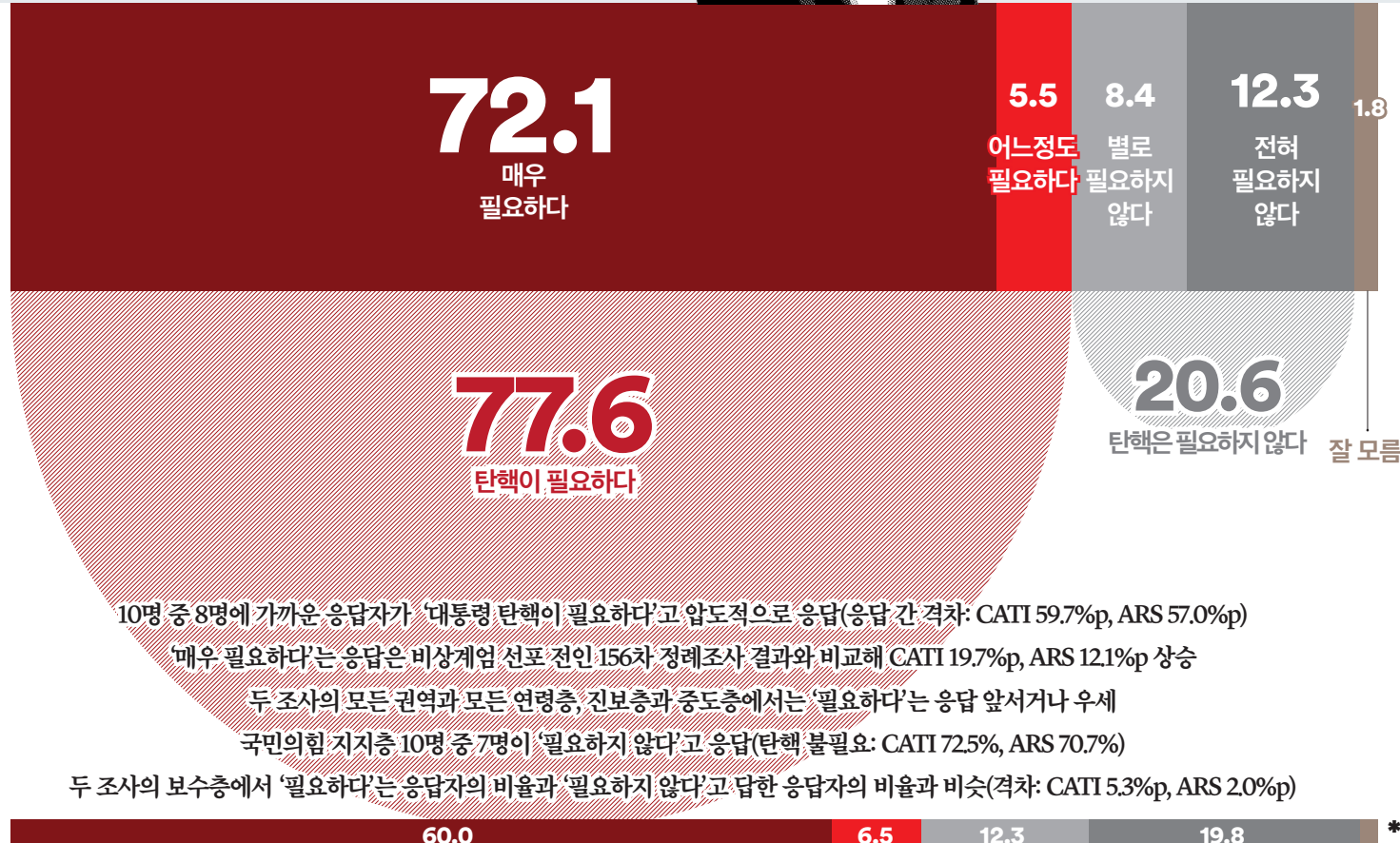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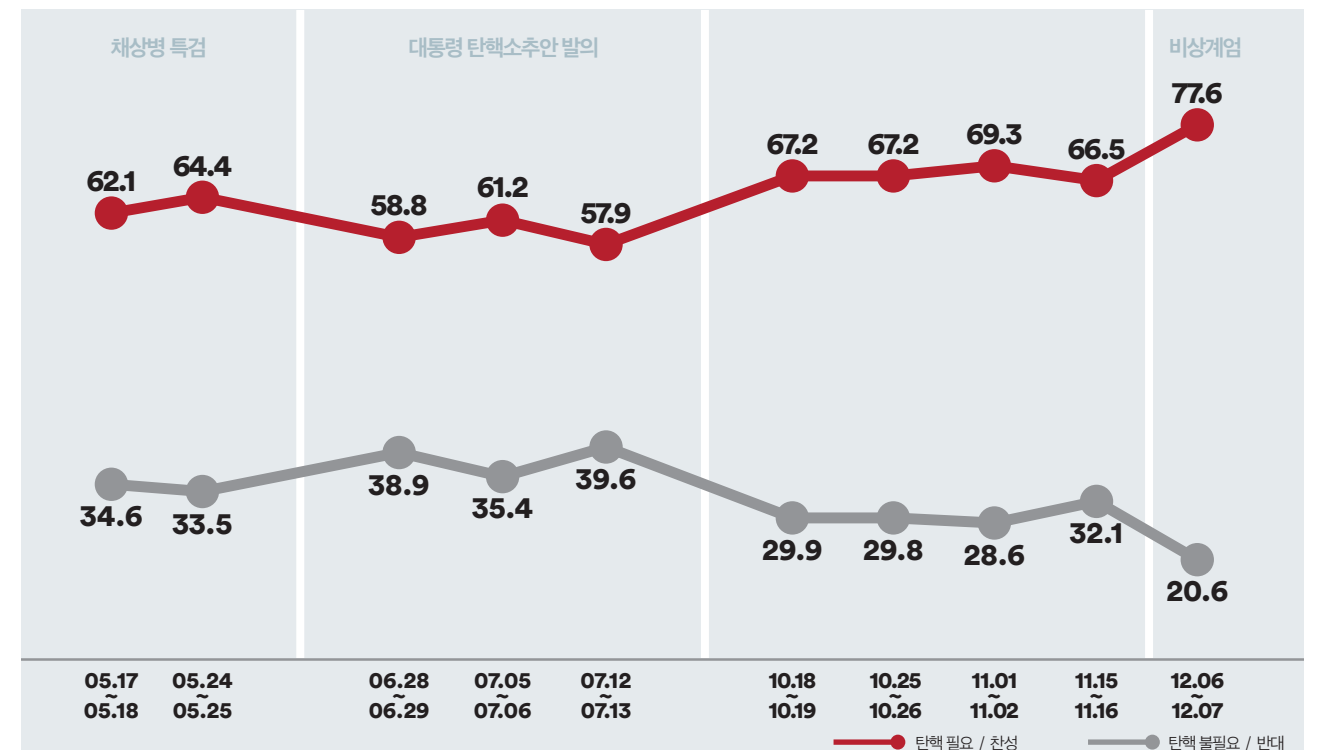
시기별 탄핵의견



ARS



시기별 탄핵의견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59.7%p, ARS 57.0%p)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156차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CATI 19.7%p, ARS 12.1%p 상승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7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탄핵 불필요: CATI 72.5%, ARS 70.7%)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과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과 비슷(격차: CATI 5.3%p, ARS 2.0%p)

*정례 156차 탄핵필요성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2_02
